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51호
2023년 7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한미동맹 70주년 평화음악회... 동문들 '벅찬 감동'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음악회가 지난 6월28일 LA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려 2000여 객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부터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한미동맹을 기리고 한국을 위해 헌신한 미군에 감사를 전하기 위한 음악회로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등 동문들 뿐 아니라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미 해군 남서부 지역사령관 브래드 로젠 제독을 비롯해 미군과 그 가족들 도 다수 참가했다. <관련기사=8, 9면>

새 회장 맞은 지부들, 동창회 활성화 시동

뉴욕 · 뉴잉글랜드 · 필라델피아 신임 회장단 취임

젊은 세대 영입 한목소리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그동안 다소 침체됐던 지부 동창회들이 새 회장을 맞아 본격 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대부분의 지부들이 연초에 새 회장 임기를 시작하지만 뉴욕, 뉴잉글랜드, 필라델피아 지부는 회계연도가 7월부터 시작해 보통 6~7월에 회장 이취임식이 열린다.

뉴욕 동창회는 지난 7월15일 정기총회를 열고 연영재(공대 74) 동문을 45대 회장으로 인준했다. 연영재 신임 회장은 신용남 15대 미주동창회 집행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아 살림을 꾸렸던 동창회 운영 '베테랑'이다.

연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인한 침체기를 보내고 동창회 활동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이 시기에 저에게 막중한 소임을 맡겨준 것은 동창회 위상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며 "동문들의 참여와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잉글랜드 동창회도 지난 6월17일 정기총회를 열고 최진민(공대 71) 동문을 21대 회장으로 인준했다.



연영재(공대 74)
뉴욕 신임회장



심희진(음대 90)
필라델피아 신임회장



최진민(공대 71)
뉴잉글랜드 신임회장

최진민 신임 회장은 "동창회 활동을 하며 동문 선후배 및 가족들과 아름다운 산과 바다와 섬을 누리며 친목을 도모한 것이 가장 좋았다"며 "동호회인 산우회 활동을 통해 친목은 물론 동문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진민 회장은 또 "젊은 세대 모임인 관악회와도 좀 더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젊은 동문들의 동창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필라델피아 지부도 지난 6월3일 정기총회를 열고 심희진(음대 90) 동문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필라한인음악인협회 회장을 지낸 심희진 신임 회장은 20년 가까이 동창회 행사 때마다 '노래 봉사'를 했고 손재욱 제13대 미주동창회장 집행부에서

회보 편집진으로 일한 헌신적인 동창회 '일꾼'이다.

심희진 회장은 "연세드신 동문들이 많다보니 팬데믹 이후 많이들 모이지 못했다"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젊은 세대 영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임 회장들은 한결같이 젊은 동문 영입을 동창회의 숙제로 꼽았다.

뉴욕 지부 새 집행부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뉴욕 총회에 참석한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미주동창회가 발전하려면 각 지부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젊은 동문 영입을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미주동창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할 것이니 앞으로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동창회 사업·발전 위해 5만5000달러 기부

이상강(의대 70) 신임 미주동창회장이 미주동창회 사업과 발전을 위해 5만5000달러를 후원했다.

이상강 회장은 지난 6월 취임식에서 "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해 개인 돈을 쓸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 취임하자마자 그 약속을 지킨 것이다.

이상강 회장은 후원금 4만1000달러 외에 미주동창회 재정자립을 위한 센츄리 파운데이션 기금으로 7000달러를 후원해 기존 종신이사(3000달러 이상)에서 골드이사로 업그레이드했다. 사무총장을 맡은 이 회장의 아내 김경숙(가정대 70) 동문도 7000달러를 더 보태 골드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강 회장은 "지난 6월 평의원 회의에 참가했던 동문들이 한결같이 즐겁고 보람있는 시간을 보냈다고 말씀해주셔서 큰 힘이 됐다. 만나면 즐거운 동창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동문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당부했다.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30@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남가주 문리대 '이목회'의 19번 홀 잔치



지난 5월 이목회 19번 홀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포즈를 취했다. 김순길 동문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이목회 회원들을 집으로 초청하겠다고 선언, 올해 송년 모임은 김 동문 자택에서 치러진다.



이목회 역사상 불후의 명장면? 이영일 동문이 호스트한 7월 이목회 19번 홀은 풀 파티로 진행돼 화제를 모았다. 일부 동문들은 수영복 차림으로 사진을 찍는 등 노익장을 과시,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실감한 하루였다.

김상찬 동문 누님의 회원 초청 뒷풀이가 계기돼 김순길 동문의 수퍼 딜릭스 메뉴에 찬사 쏟아져 고령에도 불구하고 19번 홀 호스트한 이영일 큰 선배 훗감 잡으러 바다낚시 간 박정모 동문은 레전드급

“골프 코스에서 한 라운드는 18홀이지만 완벽한 홀은 19번홀(19th hole)에서 끝난다.”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골프를 가장 사랑했다는 아이젠하워가 남긴 명언이다. 아이젠하워는 재임 8년동안 골프를 무려 800번 넘게 라운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력으론 중하위 골퍼에 불과했지만 그가 골프를 좋아했던 이유는 다른데 있다. 18번 홀을 다 돌고 나선 동료들과 함께 19번 홀이라 불리는 클럽하우스의 식당이나 바를 찾았다. 이곳에서 그날 라운드의 베스트 샷, 제일 멋진 샷, 안타까운 샷 등을 얘기하면서 와인잔을 기울였다. 이렇게 19번 홀에서 나누는 담소는 실제 라운드할 때 보다 더 많은 즐거움을 준다.

남가주 서울대 동문 골프 모임 중 가장 널리 회자되는 19번 홀은 문리대의 뒷풀이. 문리대 골프 모임은 매달 두번 째 (2) 목요일 라운딩을 한다고 해서 '이목회'라 불린다. 단톡방에 이름을 올린 이목회 회원만도 30여명이나 된다.

이목회의 19번 홀은 호스트가 대체로 특정돼 있다. 지난 7월 13일 열린 19번 홀은 이영일(정치학·53) 동문 댁에서 열렸다. 89세의 고령인데도 굳이 자택에서 모임을 갖겠다고 해서 성사됐다.

이목회 회장격인 김상찬(지질학·65)

동문은 이번 19번 홀 모임은 풀 파티로 진행된다며 가능한 한 수영복 지참을 사전 고지, 흥을 돋우었다. 이에 권봉성(지질학·64) 동문은 풀에서 축배의 잔을 올리는 '불후의 명장면'을 찍어 동창회보에 실으면 어떻겠느냐고 제안, 한바탕 웃음꽃이 피었다.

이목회의 19번 홀 모임에는 골프를 안 치는 동문들도 찾는다. 이날 오후 3시쯤 이채진(정치학·55)·강미자(음대 61) 동문 부부가 50여 마일의 먼거리를 손수 운전해 집주인과 반갑게 해후했다. 이채진·이영일 두 동문은 학창 시절부터 익히 알던 선후배 사이.

이어 골프를 끝낸 동문들이 수영장에 풍덩 몸을 던져 더위를 식히는 등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박인희(간호대 67) 동문의 '선행' (?)도 이날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다. 집에서 냉커피를 만들어와 동문들에게 직접 서브한 것. 덕분에 골프장의 무더위를 견뎌낼 수 있었다며 모두들 박 동문의 넉넉한 마음씨를 고마워했다.

이날 점심겸 디너는 최상품 통갈비와 각종 해산물, 제철 과일 등으로 푸짐하게 상이 차려졌다. 가장 인기를 끌었던 메뉴는 단연 '열무김치 메밀국수말이.'

주준희(외교학·72) 동문이 단톡방에 올린 글은 압권이었다. “국수를 말아먹으니 얼마나 행복한지... 선배님이 손수 주신 '블러디 메리'는 엄지적이고요.



이목회의 19번 홀을 빛나게 한 두 주역. 고령에도 불구하고, 19번 홀을 호스트한 이영일(왼쪽) 동문과 허리 수술로 골프를 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동문들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이목회 회원들을 초청한 김순길 동문.

그리고 풀에 들어가니 시원하고 상쾌하고... 완벽한 7월의 하루였습니다.”

이날 모임의 막내는 송명국(철학·90) 동문. 캘리포니아 주립대(롱비치) 경영학 교수인 송 동문은 선배들의 '입담'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혹시 세대차이를 느끼느냐”는 질문에 송 동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넌 재밌어요. 배우는 것도 많고요. 앞으로 (골프는 안 치더라도) 19번 홀 모임 만큼은 빠지지 않을 예정입니다.”

호스트인 이영일 동문은 남가주의 올드타이머. 제 1호 공인회계사(1971년), 남가주 CPA 회장을 지낸 유명인사다.

LA 폭동 때는 한인으론 처음으로 연방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 피해 복구에 힘썼다. 이 같은 업적이 인정돼 한인역사 박물관 인명록에 이름이 올라있다.

'이목회'의 19번 홀 전통은 2년 전 김

상찬 동문에서 비롯됐다. 골프는 LA의 외곽도시 다운니에서 거의 매번 열리는 데 마침 김 동문의 누님 댁이 인근에 있었던 것. 누님이 이목회 회원들을 집으로 초청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 동문 누님의 배려에 감격한 박정모(사회학·66) 동문이 '멕시코 카드'를 꺼냈다. 멕시코 바다낚시를 가 19번 홀 파티에 싱싱한 훗감을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 공교롭게도 당일 풍량이 거세게 일었지만 낚시배를 탔다.

박 동문이 잡아온 훗감은 30여 명이 실컷 먹고도 남았다. 박 동문의 멕시코 낚시는 지금도 문리대에서 거의 레전드급으로 통한다.

곧바로 바통을 이어 받은 이는 김순길(외교학·61) 동문. 건강이 허락하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19번 홀을 호스트하겠다고 공개선언해 놀라움을 안겼다. 김 동문은 허리 수술을 두 번이나 해 골프를 못한다. 오래 서있기도 불편한데 '동문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호스트를 자청한 것.

“(음식을) 준비하는데 1주일 가량 걸려요. 그래도 이목회 열리는 날만 생각하면 기분이 '업'돼요. 너무 신나지요.”

랍스터와 왕새우, 갈비, 고급 와인... 눈이 휘둥그레진 어느 동문이 '찬조금'을 내자 김 동문은 엄포를 놔다.

“앞으로 돈 내는 동문은 우리집 출입 금지령을 내릴 겁니다.”

김 동문은 지난 5월에도 19번 홀을 호스트했다. 벌써 세번 째다. 이날의 하이лай트는 '김 동문과 이견희 삼성 회장과의 이루지 못한 인연.'

사연은 이랬다. 6·25 때 경주 감포란 곳에서 피란 생활을 했던 김 동문은 몇 년 후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와 서울 사대부중 편입시험을 치렀다.

〈3면으로 계속〉

10월15일 모교 홈커밍데이

호암교수회관 숙박 20% 할인

오는 10월15일 모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리는 홈커밍데이 참가 동문은 호암교수회관을 사용할 경우 숙박비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관악캠퍼스 내에 위치한 호암교수회관은 서울대 교직원 및 동문 가족들을 위한 객실, 레스토랑, 행사 공간을 갖춘 지원 시설로 126개의 객실에 한식, 일식, 서양식 메뉴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다. 객실을 예약할 때 홈커밍데이 참가자로 유희림 총장 예방 일정을 알려야 한다. 미주 동문들은 15일 오전 12시30분 버들골에서 시작하는 축하행사에 앞서 이날 오전 유희림 총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미주동창회는 올해 홈커밍데이 행사

(10월15일~16일) 이후 프로그램으로 3박4일(10월17일~20일) 서해맛집 관광투어를 마련했다.

예산 수덕사, 보령 해저터널,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인 운곡 람사르 습지 생태공원, 영광, 목포 유달산, 강진 다산초당, 광양 순천만 습지 등을 돌아보며 그 지역 대표 맛집에서 고향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암교수회관 숙박 문의:

(02)880-0300/www.hoam.ac.kr

▶서해 맛집 예약 문의:

213-388-4000(아주관광 정소영 소장)

▶홈커밍 데이 문의:

백옥자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818)395-1967

‘지진 참사’ 튀르키예 돕기 성금 6500달러 유니세프에 전달

미주동창회가 지진 참사를 겪은 튀르키예 피해 주민들을 위해 모금한 성금 6500달러를 지난 6월 21일 유니세프에 전달했다.

노명호 회장의 제16대 미주동창회는 5000달러 성금 기부를 결정하고 모금 캠페인을 펼쳤는데 동문들의 참여가 잇따라 예상 보다 많은 6500달러를 기부했다.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은 “튀

르키예(터키)는 6.25 전쟁에 참전해 2000여명의 희생자를 낸 우리의 형제국인데 지난 2월 대지진 발생으로 무려 5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면서 십시일반 성금을 보내준 동문들에게 대신 감사인사를 전했다.

미주동창회는 지난해에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모은 바 있다.

<2면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는데 기성회비가 발목을 잡을 줄이야.

김 동문의 아버님은 의사로 성품이 올곧은 분이였다고 한다. “국립학교에서 웬 기성회비를 건느냐”며 화를 내곤 김 동문의 손을 낚아챘다. 전차를 타고 대방동 집으로 향하던 중 우연히 성남중 학교 앞을 지나게 됐다.

“아, 여기도 학교가 있네” 아버님 말씀 한마디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김 동문이 성남 중·고교를 나오게 된 배경이다.

“아버님이 기성회비만 냈으면 서울사대부중·고를 나왔을텐데. 이견희 회장과 사대부고 동기가 됐을거예요.” 이 말에 여기저기서 아쉽다는 코멘트가 이어졌다. “인생이 바뀔 뻔 했겠네요.”

19번 홀 개근상이 있다면 김홍묵(물리학·60) 동문을 빼놓을 수 없다.

이날따라 트래픽이 심해 5시가 넘어서야 참석할 수 있었다. 알려야 할 공지사

항이 있어 달려온 것. 다음아닌 8월 19일(토) 열리는 남가주 서울대 합창단 공연에 문리대 동문들의 적극 참여를 당부하기 위해서였다.

합창단에서의 김 동문의 파트는 베이스. 공연 프로그램 중 하나인 ‘상젤리의 거리’를 불러 녹음한 다음 이를 단독방에 올렸다.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다. ‘Awesome!’

어느새 한여름 밤이 송알송알 영글어가고 있었다. 어둠이 깔리자 박정모 동문이 끝맺음을 했다. “정확히 9시 39분에 해산입니다. 선배님도 주무셔야지요.”

모두들 일어서자 이날의 호스트인 이영일 동문이 손전등으로 어둠을 환히 밝히며 후배들을 배웅할 체비를 했다.

이 모습을 본 한 동문이 “30년은 짧게 보이신다”며 큰선배의 손을 꼬옥 잡았다.

“The age is clearly just the number. 89 is the new 59.”

대북 농업지원 대모 김필주 동문 모교 후배들에게 온라인 강연

대북농업지원의 대모로 불리는 김필주(농학56) 동문이 지난 6월 22일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 사회공헌아카데미를 통해 후배들을 만났다.

김 동문은 1989년부터 100회 넘게 북한을 방문해 이모작을 전파하고 목화 재배를 진작시키며 북한의 농업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 지구촌 농업협력 및 식량난구기 운동본부 ASii(Agglobe Services International)를 설립하고, 평양과 학기술대 농대 학장을 맡아 북한 농업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그 공로로 지난해 모교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김 동문은 이날 줌을 통해 열린 온라인 강연에서 “남북이 갈라지기 전 살았던 마지막 세대로서, 내가 가진 것을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코넬대에서 종자학 박사학위까지 받은 그는 세계적인 옥수수 종자기업 ‘파이어니어 하이브리드 인터내셔널’에서 일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개발도상국에서 종자 생산을 돕고, 선진국에서 판매하는 일을 맡았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재미 목사가



북한의 종자 보급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해왔고 1989년 동물학을 전공한 남편과 함께 북한을 처음 방문한 것을 계기로 대북 농업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김 동문은 강연을 들은 후배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남겼다.

“아무리 거부해도 남북은 숙명적으로 함께 가야 하는 동족입니다. 동정이 아닌 나눔의 정신이 필요해요. 이제 저는 몇 년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은 여건도 되고, 마음도 있지요. 평화공존과 남북 공동 번영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기환 동문의 부인, 하경희 여사의 장례식이 지난 7월 3일 LA 새누리교회에서 엄수됐다.

남가주 하기환 동문 부인 별세

남가주 하기환(공대 66) 동문의 부인, 하경희 여사가 지난 6월27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고인은 남가주 경기여고 동문회장, 이화여대 남가주 총동창회장을 역임했다.

하 동문은 미주동창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공대와 이대 불문과 미팅에서 만나 5년을 연애하다가 1971년 미국에 와 결혼했는데 당시 가난한 유학생이라 100달러로 결혼을 했다”며 지금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은 아내 내조 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 동문은 미국내 대형 마켓 7곳을 운

영하는 한남체인 회장이며 LA최대 부동산재벌 중 한 명으로 알려져있다. LA 한인회장을 2번 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해외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을 맡았다.

동창회보에서 동문 부인의 장례식 사진을 쓰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지만 고인이 유언 같이 남긴 글이 조문객들의 마음을 울려 사진을 게재하기로 했다.

“너무 아등바등 살려하지 마세요. 그게 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가도 나쁠 건 없습니다.”

만나면 반가운 동창회 ...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임원진 소개

이상강(의대 70) 신임 회장의 제17대 미주동창회는 여성 파워가 돋보인다. 동창회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과 사무총장의 손발이 되어 동창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실질적 일꾼인 총무국장, 간사가 모두 여성이다. 근래들어 리더십 덕목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공감과 섬김이다.

지난 6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평의원 회의는 환영 만찬 테이블 세팅에서 음식까지 각별히 신경쓴 손님 대접으로 동문들을 기쁘게 했다. 17대 미주동창회의 여성 살림꾼과 여성 못지 않은 친절함과 부드러움으로 동창회 재정을 챙기는 재무국장을 소개한다.



제17대 미주동창회 집행부 임원들이 지난 6월10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평의원 회의에서 참석 동문들 앞에 나와 인사하고 있다.



김경숙
사무총장
(가정대 70)

저는 이번에 사무총장직을 맡은 가정대학 식품영양학과 70학번 김경숙입니다.

졸업 후 미국 오기 전까지 국내 종합병원에서 영양사로 4년여간 근무했습니다. 결혼은 남편이 의과대학 재학 중이었고 2남1녀를 두고 있습니다.

지면으로나마 동문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1980년에 뉴욕으로 이사해 남편의 내과 Resident와 Pulmonary medicine Fellowship을 뉴욕에서 마쳤습니다. 후에 오클라호마의 종합병원에서 일할 기회를 계기로 그곳에 자리잡게 되었고 개인병원을 하며 은퇴할 때까지 35여년을 살았습니다.

저는 제 전공보다는 남편의 개인 오피스 경영에 많은 참여를 하였습니다.

Ledger Card 에서 부터 시작해 Insurance Billing, Payment Posting, Various Paper Work, Employee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들, Basic한 수입과 지출의 재정관리 등 비록 전문적인 운영은 못되겠지만, 전문직(의사, NP, PA), 사무직원 10여명, 7000sq.ft 빌딩의 오피스를 나름대로 운영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번에 제가 맡게된 미주동창회의 중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강 회장님의 동창회에 대한 열정을 옆에서 능력껏 돕고, 모든 동문님들의 고견을 반영할수 있는 역할을 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 되어가는 동창회이지만, 특히 젊고 의욕 있는 동문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기반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귀 기울여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훌륭하신 선후배 동문님들의 많으신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백옥자
총무국장
(음대 71)

항상 행사 준비 일에 집중하다 보면 협조 잘 해주시는 모든 동문님들께 인사를 못 드리고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든다.

난 이 지면을 통해서 정말 고맙고 두손 모아 인사를 드리고 싶다.

내가 여지껏 내 삶을 돌아보면 보람된 일을 한 것이 있다.

그것은 이민 오고 1978 - 2002년까지 24년 한국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며, 2세들을 위해서 교사, 교장으로 일한 나의 값진 삶이다. 또 하나는 2003 - 2023년 16년 (6년 빼고) 서울대 동문님들과 함께 한 나의 값진 삶이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꾸준히 해오면서 바쁜 가운데서도, 얼마나 보람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일했는지 그것이 나에게 활기를 준 것 같다.

내가 은혜를 입고 서울대 합격 했을 때를 생각하면 이 다음에라도 꼭 보답을 하고 싶다.

후원금을 내시는 동문님들이 나는 참 부럽다. 그리고 존경한다. 그렇다고 후원금 내시는 동문만 그런 것은 아니다.

하여간 내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마우면서 박수 드리고 싶다.

지금까지 서울대 회보가 존속해 오고 있는 뜻 깊은 사명감은 서울대 동문님들의 한결 같은 서울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분 한 분이 주춧돌이 되어준 기반이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서울대를 사랑한다.



박혜옥
간사
(간호대 69)

17대 미주동창회에서 간사를 맡은 간호대학 69학번 박혜옥입니다.

1975년 뉴욕으로 이민 와서 1985년 남가주로 이주했고 개인 clinic에서 supervisor로 일하다 은퇴한 후 2015년 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남가주에는 간호대 동창이 150여명 거주하고 있으며 50년 넘게 끈끈한 우애를 이어온 간호대 동문들의 동창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 봉사정신에 힘입어 40대 남가주 총동창회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7대 미주총동창회를 위해 많은 여성 동문들의 적극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임춘택
재무국장
(상대 68)

17대 미주동창회 재무국장을 맡고 있는 상과대학 68학번 임춘택입니다. 그동안 서울대학교 동창회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 많은 면에서 생소 합니다.

미국에 이민온 지는 40 여년이 지났고, 지금은 엘에이 인근 파사디나 지역에 부부만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간 운영해왔던 개인사업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자녀들은 덴버와 시애틀에서 가정을 이루어 각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고, 둘째 아들만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Face Time 으로 가끔가다 손녀딸의 재롱 떠는 것을 보는 것이 유일한 낙입니다.

대부분의 초기 이민자들이 겪어 왔듯이, 저도 태평양을 건너온 후 이민생활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며 지냈고,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다보면, 서울대학교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은 한번도 느껴볼 겨를 없이 살아 온 것 같습니다.

제가 60대 중반을 지날쯤에, 저희집 둘째아들이 2년간 한국에서 미군으로 근무하다가 휴가차 이곳 엘에이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날 아침 커피 한잔 하자는 아들의 권유로 말리부 비치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뜬금없이 서울대학교가 한국에선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느꼈노라고 말해 감동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이 Turning point가 되어, 이때부터 상과대학동창회, 남가주 서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등에 참여하여 이일 저일을 맡고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 동문들이 주축이 된 골프동우회(매수회/말수회)에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잘 치지는 못하지만, 만나면 반갑고, 돈내기도 하고, 잘 먹고, 유쾌하게 웃고 즐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간 17대 이상강 회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배우면서, 미주 동창회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40여년 동창회 행사 빠지지 않는 ‘동창회 사랑꾼’



김창수
(약대 64)

뉴욕 지부 동창회장을 지낸 김창수(약대 64) 동문이 미주동창회에 종신이사 가입비 1만달러를 보내며 골드이사 리

뉴욕 지부 설립 때부터 참여
17대 집행부 편집 고문 맡아

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김창수 동문은 이상강 신입회장이 이끄는 제17대 미주동창회 집행부에서 새로 편집 고문도 맡았다.

김 동문은 “지난 4월 택스 보고 시즌을 끝으로 사실상 은퇴를 했다”며 “시간이 생겼으니 앞으로 동창회 일에 더욱 열심히 참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동문은 1978년 뉴욕 지부 동창회가 처음 출범할 때부터 인연을 맺어 10년간 장학위원장을 맡았고 동창회 행사라면 빠지지 않는 ‘동창회 사랑꾼’이다.

동창회 1년 스케줄이 나오면 달력에 우선 표시해두고 다른 일정과 겹치지 않게 했으니 동창회 출석을 거의 100%를 자랑한다.

김 동문은 “1973년 미국에 와서 처음 만난 그룹이 서울대 동문들이었다. 같이 여행가고 골프 치고 피크닉하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사업적으로도 동문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면서 동창회 덕분에 누린 즐거움과 혜택에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 동문은 약대와 경영대학원(71년 입학)을 졸업했고 미국 와서는 NYU에서 어카운팅으로 MBA를 해 CPA가 됐다.

뉴욕 주정부에서 세무 감사관과 수퍼

바이저로 10년간 일하고 1988년부터는 맨해튼 한인타운에 CPA 사무실을 개설해 지금껏 운영하고 있다.

김 동문은 재정계획과 세금 관련 책을 3권이나 낸 저자이기도 하다. 1992년 처음 출간한 ‘알기쉬운 미국 경제’는 3쇄까지 찍으며 당시 한인들 사이에서 교과서처럼 읽혔으니 나름 베스트셀러 저자라고 할 수 있겠다.

김 동문은 “학창시절 대학신문 기사를 한 덕분에 글 쓰는 것이 습관이 됐다. 미주 동창회보를 처음 발간할 때 편집진으로 참여했는데 이번에 다시 편집 고문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미력이나마 사랑받는 동창회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결혼 50주년 기념해 종신이사 가입 박인창(농대 65) 동문 5000달러 후원



박인창 동문은 여행을 좋아해 그동안 부인과 함께 70여개국을 다녔다.

“내년 1월이면 저희 부부 결혼 50주년 금혼식입니다. 이를 기념해 미주동창회에 5000달러를 후원합니다.”

남가주 농대 동창회장을 지낸 박인창(농대 65)동문이 종신 실버이사 가입비로 5000달러를 보내왔다.

박인창 동문은 “옛날부터 마음은 있었는데 이제야 보낸다”면서 “더 늦기 전에 서울대인으로서 제가 받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모교에 돌려주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박 동문은 종신이사비와 함께 보낸 글에서 결혼 50주년을 앞두고 부부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해로한 것도 감사하고 두 자녀가 잘 커서 예쁜 손주들 안겨준 것도 감사하다며 돈은 5000달러지만 감

사한 마음은 가득 담았다는 말을 덧붙였다.

박 동문은 72년 미국에 이민 와 Microbiologist & Chiropractor로 일했고 10여년 전 은퇴했다. 여행을 좋아해 그동안 70여개국을 섭렵했으니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할 정도다. 지난 2월엔 피지와 뉴질랜드, 호주를 다녀왔고 중국은 국내선을 4번이나 갈아타며 전역을 돌았다.

박동문은 서울대 동문 가족으로도 유명하다. 여동생인 유희자(음대 68) 국악무용연구소장은 미 사회에 한국 전통무용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고 친형은 박인수(농대 64), 매형은 손학식(공대 61) 동문이다.

‘모교 사랑’ 임낙균 동문 또 1만달러 동창회 후원 종신이사 가입도 줄이어



남가주 동창회장을 지낸 임낙균(약대 64·사진) 동문이 새롭게 출범한 제 17대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에 후원금 1만달러를 보내왔다.

동창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동창회 사업에 쓰라며 조건없이 보내온 돈이다.

임 동문의 모교 사랑은 각별하다. 오늘의 그가 있게 한 삶의 뿌리인 약대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후배 학생들을 위해 1만달러씩 장학금을 보내고 있다.

제17대 미주동창회가 새로 출범한 7월에는 동문들의 종신이사 후원도 줄어

이상강 미주동창회장과 김경숙 사무총장 외에도 모교 발전기금미주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이만택(의대 52) 동문이 5000달러를 더 후원해 기존 실버에서 골드로 업그레이드했다. 뉴욕 김창수(약대64) 동문도 골드이사가 됐다.

남가주에서는 이종묘(간호대 69) 동문과 박인창(농대 65) 동문이 5000달러를 보내 새로 실버 종신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뉴욕 김영용(치대 55) 동문은 종신이사 기금 3000달러 외에 장학기금으로 2000달러를 보내왔다.

플로리다의 임필순(의대54) 동문, 뉴욕 이영재(상대 58) 동문, 워싱턴DC 최재귀(미대 63) 동문도 새로 종신이사에 이름을 올렸다.

동창회보 광고협찬 후원금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보는 미주 각 지역에 살고 계신 동문 여러분들을 하나로 엮어 주는 유일한 인쇄매체입니다. 매달 거의 1만부를 인쇄 배포하고 있어 동창회의 재정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갖고 계신 동문들이 광고로 협찬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 후원금과 함께 많은 분들이 출연해 주시는 종신이사 회비도 동창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내=25면 하단 참조>

“주머니에 들어가는 양자 컴퓨터 시대 올 것”

김정상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 겸 듀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지난 7월5일부터 7일까지 서울 강남에는 전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한인 과학자 3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제1회 세계 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 초청받은 과학자들이다.

미국에서도 한국 여성 최초로 스탠퍼드대학 의과대학과 전자공학과 종신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교수와 양자컴퓨터 기업 아이온큐 공동창업자인 김정상 듀크대 전자컴퓨터공학과 석좌교수, 한국인 최초로 미국물리학회장에 오른 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 등 120여명이 참석

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진 재미한인과학기술인과 간담회에서 약속한 한국내 과학자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이진형 교수와 김정상 교수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두 과학자는 특별 강연은 물론 과학도들을 멘토링하는 한인 석학과의 대화, 쏟아지는 언론 인터뷰 등 행사의 주역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두 과학자를 소개한다.

뉴욕 증시 상장 기업가치 30억 달러 구글 아마존 삼성 현대 등 줄줄이 투자

컴퓨터의 미래로 꼽히는 양자 컴퓨터는 꿈의 컴퓨터다. 슈퍼 컴퓨터가 1만 년 걸려야 풀 수 있는 문제를 5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이 틈에서 김정상(물리학과 88) 듀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크리스토퍼 먼로 메릴랜드대 물리학 교수와 2015년 공동 창업한 아이온큐가 벌써 세 번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에 본사를 둔 아이온큐는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됐다. 기업가치는 약 30억 달러. 김 교수는 기술총괄(CTO)을 맡아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스타트업)이 된 아이온큐를 이끌고 있다.

먼로 교수 제자가 창업 제의

김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와 스탠퍼드대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가 1992년 발표한 박사 학위 논문 ‘단일광자 빔 발생장치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되며 양자 컴퓨터 개발의 근간이 됐다. 덕분에 그는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대학원 졸업 후 그는 벨연구소에 들어가 5년간 통신기술을 연구했고 2004년 듀크대 교수로 옮겨 상용화 가능한 미래 기술을 고민하다가 본격적으로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 먼로 교수를 만난 것도 그 무렵이다. “먼로 교수는 원자물리학 분야에서 양자컴퓨팅을 최초로 실험한 학자죠. 연구 분야가 서로 보완 관계여서 2000년대 중반부터 공동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때 특이한 인연을 만났다. “먼로 교수의 제자가 물리학을 전공하고 벤처투자사에서 일하다가 우리의 논문을 읽고 같이 회사를 만들라고 제안했어요. 이를 계

기로 아이온큐를 공동 창업했죠.”

희토류 이테르븀으로 작동

양자 컴퓨터의 두뇌인 중앙처리장치(CPU)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를 이용하거나 반도체 제조 기술로 양자를 만드는 것이다.

아이온큐는 희토류 이테르븀의 원자를 이용해 ‘이온 트랩’이라는 장치를 만드는 독보적 기술을 개발했다. 이테르븀은 희토류이지만 작은 조각으로 양자 컴퓨터를 가동할 수 있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해도 지장 없다.

“동위원소 171을 사용하는 이테르븀은 바늘 끝 만한 조각으로 양자 컴퓨터에 필요한 30, 40개 원자를 제공해요. 이테르븀은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나오죠.”

반면 다른 업체들의 반도체 기술로 양자를 만드는 방법은 극저온을 유지해야 작동한다. 따라서 일반 상온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양자는 주변 환경에 민감해요. 완전 고립되지 않으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중첩과 얽힘 현상이 흐트러져요. 그래서 반도체 기술로 만든 양자 컴퓨터는 전자 회로가 간섭을 덜 받는 극저온 상태가 필요해요. 이렇게 되면 극저온 장치 때문에 양자 컴퓨터의 크기를 줄일 수 없죠.”

김 교수는 진공 용기에 이테르븀 원자를 가두는 기술로 저온뿐 아니라 상온에서도 양자가 잘 작동하도록 했다. 더불어 크기도 줄였다. 김 교수가 보여준 자체 개발한 이테르븀 진공 용기는 가로, 세로 3, 4센티미터 크기의 작은 상자다.

아이온큐가 내놓은 양자 컴퓨터는 ‘하모니’, ‘아리아’, ‘포르테’ 등 총 3종이다. 2018년 개발된 하모니는 2020년부터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된다. 양자 컴퓨터를 설치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기능이 개선된 아리아는 지난해, 최신형 포르테는 지난달 말



공개됐다.

구글, 아마존, 현대 등 투자

현재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곳은 현대자동차, 유럽 비행기 제조사 에어버스, 미국 GE 연구소와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등이다.

덕분에 매출이 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1,11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전체 매출은 1,840만 달러 이상을 기대한다. 직원 260명 가운데 70%가 개발자다.

투자는 구글벤처스, 아마존웹서비스, 현대자동차, 삼성캐피털리스트펀드,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인 무바달라캐피털 등에서 받았다. “상장 전까지 약 9,000만 달러를 투자받았고 증시 상장으로 6억 달러 이상을 조달했어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 아이온큐를 창업한 김정상 공동창업자는 오는 9월에 정부와 함께 양자 컴퓨팅 인력을 육성하는 교육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김정상 동문이 창업해 나스닥에 상당한 아이온큐는 세계 최초로 이온트랩 방식의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성공해 현재 기업가치가 30억달러에 이른다. 아이온큐가 지난달 말 새로 발표한 양자컴퓨터 포르테.

정부와 양자 인력 양성 각서

김 교수는 한국을 가끔 방문해 세미나와 강연을 하는 등 후배 양성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정부 지원을 받아 오는 9월부터 양자 컴퓨팅 인력 양성을 위한 시범 교육을 시작한다.

“산업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주일 단위의 단기 교육을 시작합니다. 합숙 교육을 논의 중이죠. 강사진과 교육 내용을 모두 미국에서 도입해요. 저도 강의에 참여합니다.”

그는 스마트폰처럼 작은 양자 컴퓨터 시대도 예상했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양자 컴퓨터는 이미 나와 있어요. 많은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면 점점 성능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주머니에 양자 컴퓨터를 갖고 다닐 날이 올 겁니다.”

특히 양자 컴퓨터가 인공지능(AI)과 결합하면 대변혁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외할머니 뇌졸중에 독학으로 뇌 과학 뛰어들었죠”

이진형 스탠퍼드대 의대 · 공대 종신 교수 겸 엘비스(LVIS) 대표

이진형(전기공학과 94) 동문은 스탠퍼드대 의대 신경과 교수이자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한국 국적의 여성 가운데 이 대학 종신교수로 임용된 건 그가 처음이다. 더 놀라운 건 그가 의학을 전공한 적이 없다는 거다.

학부 전공부터 박사학위까지 모두 전기공학 외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의대 신경과 교수를 하고 있고 엘비스(LVIS)라는 스타트업에 창업해 치매,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을 진단 치료하는 플랫폼 뉴로매치의 연내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의 15년 연구 결실과도 같은 뉴로매치는 현재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플랫폼이 상용화하면 뇌를 전기회로도처럼 들여다보면서 질환을 치료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

남들은 하나도 하기 어려운 일을 그는 40대 젊은 나이에 이뤄냈다. 하지만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고 한다. 이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는 항상 반대가 끊이지 않았다”며 “그것을 뚫고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한국 여성 첫 스탠퍼드대 종신교수 뇌 질환 진단기기 연내 상용화 예정

이 교수는 열 살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성공해 편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학을 하고 싶단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10대 때부터 주변의 반대에 부딪혔다. 과학고에 진학한다고 하자 “과학만 공부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며 선생님들이 반대했다. 그래도 과학을 공부하겠다는 마음으로 서울 과학고에 진학했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입학 면접에서는 교수가 “전기과에 여학생이 뭐 하러 오느냐”라고 물었다. 그럼에도 매력을 느꼈던 전기과에 입학했고 스탠퍼드대로 유학 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변 반대 뚫고 온 파이어나어

이 교수는 “요새 많은 학생이 선망하는 직업인 의사가 안 된 것을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며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이 시대에 과학자를 하는 것은 참행운”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유학 당시 공부는 참 재미 있었지만 목표 의식이 불분명해 연구에 대한 흥미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사를 졸업할 때쯤 외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스탠퍼드 대학원을 다니던 이 교수에게 외할머니는 고난을 버티게 하는 힘이였다. 힘든 일이 있으면 영영 울며 외할머니를 찾았고, 위로 받았었다.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런데 재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뚜렷한 차도도 없었어요.” 외할머니는 그렇게 12년 여생을 병상에 계셨다.

뭐든 고장 나면 고장난 부분을 찾아 고치는 게 당연했던 전기공학도에겐 이해가 되지 않았다. 뇌도 회로처럼 신경망이 서로 연결돼 통신하는 구조 아닐까? 그 구조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뇌 회로도’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다. 여태껏

뇌 회로도를 파악하지 못한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다. 뇌는 두개골로 싸여 있어 접근 자체가 어렵고, 그간 뇌 연구는 의학자나 생물학자들이 해왔기 때문이다. 뇌를 회로처럼 생각하는 건 공학적 사고방식이었던 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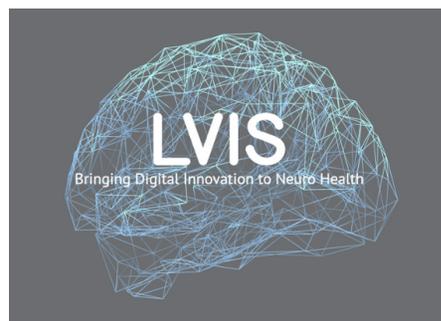
“회로도가 있어야 질환의 원인 지점을 정확히 찾아 고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도 한 사람이 없으면 내가 해야겠구나, 결심한 계기입니다.”

그렇게 뇌과학 연구에 뛰어들게 됐다. 전기공학을 공부하다 갑자기 진로를 바꾸겠다고 하니 또다시 반대에 부딪혔다. 지도교수와 주변 지인들 모두 “커리어가 망가진다” “전기공학자인데 어떻게 뇌 연구를 하겠느냐”라고 했다. 심지어 당시 UCLA 교수로 임용된 상황이었다.

“신경세포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배워야했어요. 그것만 해도 험난한데, 설득 과정도 지난했죠.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전까지 다른 분야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생소한 방식으로 지금껏 의학계에서 못한 것을 한다고 하니, 설득이 어려웠어요.”

연구실로 돌아가 매일 새벽 2시까지 실험했다. 쉽게 성공할 리 없었다. 100번째 실험에서 실패했을 땐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120번째쯤 되니 마침내 성공에 이르렀다. 그렇게 치열하게 규명하게 뇌신경과 헤모글로빈의 농도 관계였다. 2010년 이를 담은 논문이 네이처를 통해 발표됐다. 그때서야 의학계에서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신경세포가 망처럼 연결된 뇌를 전기회로도처럼 분석하는 연구로 미국국립보건원(NIH)에서 과제 지원을 받게 됐고,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스탠퍼드대 종신교수로 임용됐다. 2019년에는 NIH가 주는 최고 권위상인 ‘파이어나어상’도 받았다. 이 교수는 “기준에 없던 새로운 연구를 하다 보니 남들보다 오



이진형 동문은 스탠퍼드대 의대 교수로 뇌 회로를 분석해 치매를 진단 치료하는 플랫폼 뉴로매치를 개발하고 있다. 아래 사진은 이 동문이 창업해 뉴로매치를 개발 중인 스타트업 엘비스의 로고.

랜 시간이 걸렸고 몇 배의 노력을 더 들여야 했다”며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내 직업은 문제 해결사”

이 교수는 2013년 엘비스를 창업했다. 그가 창업을 한 이유도 같았다. 뇌질환을 해결하고 싶어서다. 연구한 것을 실제 환자 치료에 적용해보려면, 이를 추진할 회사가 필요했다. 이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었다면 꼭 창업을 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때도 주변에서 “교수가 무슨 사업을 하느냐”고 만류했다. 그는 “전공을 바꿨을 때보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더 큰 저항과 벽을 느꼈다”고 했다. 엘비스는 사람의 실제 뇌를 디지털 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 뇌의 기능과 상태를 정밀하게 측정해 뇌 질환 진단

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는 치매 진단에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론은 ‘뇌의 A 부분에 이상이 있으므로 치매가 생긴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A가 B, C, D 등과 연결돼 있고, 이 가운데 A-C 구간에 이상이 생겨 치매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세밀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이 교수는 “뇌전증(간질)을 진단할 수 있는 플랫폼을 올해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자, 창업가, 교수로 불리지만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해결했을 때의 그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6.25 미군 전사자 3만6591명 “우리는 혈맹”

한미동맹 70주년 평화음악회를 다녀와서



주준희
(문리대 외교학과 72학번
정치학 박사)

지난 6월 28일 디즈니 콘서트 홀에서 열린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 하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에 다녀왔다.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금난새 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메조소프라노 백재은, 테너 허영훈 외에 피아노 찰리 올브라이트 그리고 성남시립교향악단 등 총 70여 명이 연주하는 풍요로운 잔치였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한미동맹재단, 주한미군전우회와 공동주관하였으며, LA Korean American Federation of Los Angeles, LA 총영사관, 한남체인, ROTC 동지회 등이 후원하였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전우회 회장을 비롯해 미 해군 남서부 지역사령관 브래드 로젠 제독과 한국전 참전용사로서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도 참석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국익위주의 국제관계에서, 70년 동안 서로 의리를 지키며 동맹을 유지했다는 것은 경축할 만하며, 한때 주사와 막스레닌가가 잡고 있던 서울대의 동창회가 주관했다는 것이 더욱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요즘 좌파들이 평택에 모여 “미국은 평택미군기지 반환하고, 미군은 당장 이 땅을 떠나라!”라고 시위를 한다는 데, 참 세상을 거꾸로 보는 한심한 사람들이다.

한국에 있을 때,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갔었다. 들어가는 입구 높은 벽에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36,591명의 미군의 이름과 출신주, 나이가 써 있었다.

조지 탑슨, 미주리, 20세; 루터 스토리, 조지아, 19세; 폴 힐, 캘리포니아, 19세... 낮은 땅에서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외국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고 숨겨간 옛된 미국 청년들... 그들의 어머니를 생각하고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렸다.

한미동맹은 단순히 이해타산적인 동맹이 아니라, 혈맹이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 피를 흘려 목숨 바쳐 지킨 자유이다. 인간의 지혜 중의 하나는 감사한

지휘자 금난새 해설 곁들인
오페라 ‘카르멘’ 하이라이트
“매혹적이고 아름다웠다”

태극 무공훈장 받은 참전용사
샌디에이고 해군기지 사령관
미군들도 참석해 자리 빛내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이다. 서울대 총동창회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했다니 참 기쁘다.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G7 국가에 버금가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이뤄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은 한국전쟁이 정전된 후 한미 양국이 체결한 굳건한 한미동맹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이번 음악회는 300만명이 넘는 주한미군 전우들과 미주동포사회를 새롭게 연결하는 ‘우정의 다리(bridge)’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00여명을 수용하는 디즈니 콘서트 홀이 거의 꽉 찼고,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였다.

금난새는 멀리서 보면 중국식의 빨간 자켓을 입고, 머리가 반백이었다. 금난새의 아버지 금수현은 “그네”를 작곡한 음악가이고, 여동생 금내리는 60년대 말 여학생 잡지의 모델로 등장하여 미모를 뽐냈었던 기억이 난다.

난새는 최초로 등록된 한국어 이름이다. 그의 아버지는 독특한 생각과 행동으로 유명했는데, 금난새도 그 DNA 인듯하다.

지휘자는 보통 등을 보이고 있고, 말을 하지 않는 데, 금난새는 자유분방하게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 “음악은 판타지”라고 하면서 비제의 카르멘의 음악에 담긴 판타지를 유창하고 자유분방하고 유머러스 하게 설명하였다.

“카르멘” 오페라의 하이라이트를 하나 하나, 한 음절을 연주하고 판타지를 설명하고, 다음 한 음절을 연주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그는 서울예술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했고 베를린 음대를 졸업하고 KBS 교향악단을 12년간 이끌었고, 1992년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가 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 및 예술 총 감독을 맡고 있다. 그의 음악, 판타지는 감성적이고 매혹적이고 아름다웠다.

첫번째는 전주곡으로서 여성이 다수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는 지휘자 금난새씨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로 청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금난새씨와 성남시향 연주자들이 청중들의 박수에 일어나 인사하고 있다.

를 이룬 성남시교향악단의 현악기, 목관악기, 그리고 현지 미국인 위주의 타악기로 연주되는 행진곡이 투우장의 흥분된 분위기를 잘 묘사했고, 거대한 현지 미국인의 금관 악기와 더블베이스의 반주 위에 한미 현악기들이 위풍당당한 가락을 연주했다.

두번째 곡은 카르멘의 유명한 하바네라는 민속 춤곡으로 후에 탱고로 이어지는 곡이다. 극중의 “관능적인” 카르멘이 처음으로 모습을 보이고 나서 다른 남자들과 달리 자신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하사 돈 호세를 유혹하기 위해 “관능적인” 하바네라를 부른다.

“사랑은 타고난 보헤미안, 법도 규칙도 없어 날 안 좋아한다면 내가 좋아할 거야 내가 좋아 하면 조심해야 해(년 넘어올 테니까).”

카르멘 역을 맡은 메조 소프라노 백재은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보스턴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다수의 오페라단에서 활동하고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공연했다. 클래식 음악평론가 그룹에서 “지난 10년간 한국 클래식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카르멘”이라는 평을 들었다.

그 다음 절은 남자들이 카페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카르멘에게 걸리지 말라”고 노래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해서 한참 웃었다.

카르멘이 던진 꽃을 받은 돈 호세는 금난새에 의하면 “순진한 시골청년”이다. 촉망받는 군인이었던 그는 공장의 동료에게 칼로 상처를 입힌 카르멘을 폭행죄로 연행하나, 풀어달라는 유혹에 넘어가 카르멘의 도망을 돕게 되고 카르멘을 대신하여 두 달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그 다음 아리아는 “꽃 노래”이다. 석방된 후 선술집에서 카르멘과 반가운

앵콜곡 ‘아리랑’ 연주 듣는데 눈물이 났다



6.25 참전영웅 로이스 윌리엄스 해군 예비역 대령이 지난 6월 28일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평화음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브래드 로젠 해군 남서부 지역 사령관이 옆에 앉아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태극무공훈장 받은 참전영웅 윌리엄스 대령도 자리 빛내

지난 4월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미 해군 예비역 대령도 한미동맹 기념 70주년 음악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윌리엄스 대령은 해군 파일럿으로 6·25전쟁에 나가 현대 전쟁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 무공을 세웠으나 반세기 동안 그의 활약상을 비밀에 부쳐야 했던 비운의 노병이었다.

1952년 11월 스물 일곱살 청년 해군 장교 윌리엄스는 적 시설물 폭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투기 F9F 팬서를 몰고 함경북도 회령 상공으로 날아갔다가 소련군이 띄운 적기들에 둘러싸였고, 35분간 벌인 공중전에서 미그기 네대를 격추했다.

하지만 소련을 자극해 전세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정보 당국의 판단에 따라 전황 보고서는 기밀 문서로 분류됐고 윌리엄스에게는 함

구령이 내려졌다. 윌리엄스가 격추한 미그기 숫자는 ‘1’로 축소돼 공표됐고, 이 전 공으로 그는 은성무공훈장을 받았다.

그의 활약상은 2002년 당시 출격 기록이 기밀 문서에서 풀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이후 군과 참전 용사 관련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왔다. 올해 98세인 노장의 기억은 또렷했다. 한국전쟁 참전 당시를 마치 어제 일처럼 회고하는 그는 다만 27세 혈기 왕성한 청년에서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는 노인으로 외형만 바뀌어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이날 인사말에서 “한국전을 잊혀진 전쟁이라고 한다. 나 역시 잊혀진 친구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헛되이 죽지 않았다”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이 기쁘고 인상 깊으며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재회를 하자 돈 호세가 카르멘이 주었던 장미를 꺼내며 부르는 노래이다.

“왜 내가 널 좋아했을까, 바보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 말은 “Je

t’aime.” 이 아리아는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금난새는 “아름다운 작곡가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 등 동문들이 리셉션에서 지휘자 금난새,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과 자리를 함께 했다.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이 음악회에 앞서 열린 리셉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오페라 ‘카르멘’의 유명 아리아 ‘하바네라’를 부르고 있는 소프라노 백재은.

돈 호세역을 맡은 테너 허영훈은 한양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런던 길드 홀 음악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독일 하노버 오페라 하우스 전속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다. 참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그 다음 아리아는 “집시의 노래”였다. 탬버린 소리에서 스페인 냄새가 나는 곡이다.

마지막 곡은 피날레였다.

돈 호세는 카르멘에게 함께 멀리 떠나자고 하지만 카르멘은 더 이상 돈 호세를 사랑하지 않으며 투우사 에스카밀로를 사랑한다고 한다. 순간 돈 호세는 분노하여 허리춤의 칼로 그녀를 찌른다. 형법에서 말하는 순간적 격정에 의한 고살(manslaughter)인 셈이다. 금난새는 “오페라는 여주인공을 죽여야 성공한다”고 했다.

이 오페라는 대실패였고 공연 3개월 후 비운의 비제는 40대의 나이로 사망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결국 카르멘은 그 음악성으로 인해 가장 사랑받는 프랑스의 대표적 오페라가 되었다. 니체는 음습한 독일적 분위기를 단번

에 날려버리는 찬란한 태양의 음악이라 했고,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음표 한 개도 버릴 것이 없다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금난새 스타일의 판타지는 무척 즐거웠고, 지휘자와 혼연 일치된 듯한 성남시립교향악단의 연주는 탁월했다.

인터미션 후 피아니스트 찰리 올브라이트가 조지 거슈윈의 랩소디 인 블루를 금난새가 지휘하는 성남시립교향악단과 협주했다. 깜짝 놀랄 정도의 자유롭고 감성적이고 기교가 뛰어난 연주였다.

아버지는 미국사람, 어머니는 한국사람인 잘생긴 청년이다. 하버드대학교 뉴 잉글랜드 대학원, 줄리아드 음악대학원을 졸업했고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카네기 홀 등에서 연주해왔다.

앵콜로 연주한 아리랑은 그 동안 들은 모든 아리랑 중에 눈물 날 정도로 탁월했다. 나 자신만의 것으로 덮어 두었던 깊은 무의식 속의 감성을 예술이 공개적으로 끄집어 내어 공감해 줄 때, 우리의 영혼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목욕하고 난듯 상쾌하고 맑아진다. 참 아름답고 즐거운 탁월한 음악회였다.

최진민 회장 취임 ... 학생 11명에 장학금 수여

뉴잉글랜드

동문들 적극적 모금 활동에 장학사업 기부금 크게 늘어

뉴잉글랜드 동창회(회장 임영호)는 지난 6월 17일 토요일 성 앙투앙 다블뤼 한인 천주교회 (Newton)에서 2023 정기총회, 장학금 수여 및 야유회를 가졌다.

갑작스러운 우천 예보로 인하여 뉴튼 어번데일 파크(Auburndale Park, Newton)에서 실내로 장소가 변경되었지만, 쌀쌀하고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1950학년부터 2010년 이후 학번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동문과 장학금 수상자 및 가족 70여명이 대거 참석하여 푸짐한 한식 뷔페 식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교가제창으로 시작된 정기총회에서는 퇴임하는 임영호(공대 72) 20대 회장의 인사말과 21대 최진민(공대 71) 회장 소개, 정해원(자연 02) 차기 청년모임 관악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참석한 동문들은 신입이사로 이규진(약대 60), 현재희(음대 72) 동문과 연임이사 인준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점심식사 후에는 오랫동안 동창회에서 수고한 김은한(의대 60), 김동희(간호 62), 윤상래(수의 62) 자문이사들과 김유경(음대 72) 전회장에 대한 감사장 증정이 있었다.

장학금 수여식은 작년 장학생 대표이자 최근 노스웨스턴 대학교 기계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김준수(공대 07) 박



뉴잉글랜드 동문들이 지난 6월17일 열린 정기총회를 마치고 한자리에 모였다.



퇴임하는 20대 임영호 회장과 신임 최진민 회장.

사의 연설로 시작되었다. 이어 올해의 장학생으로 선발된 11명의 학생들이 각 후원자로부터 장학증서와 장학금(\$2,000 - \$3,000)을 전달받았다.

고 이재신(공대 57) 동문 가족의 통큰 기부로 궤도에 오른 동창회 장학사업은 매해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국계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부터 이어진 장학사업은 김광수(자연 73) 장학위원장과 이현구(자연 98), 신진우(농생 04) 위원들의 적극적인 모금 활동 덕분에 기업이나 단체, 의



뉴잉글랜드 동창회가 주는 2023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동창회 임원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명의 기부자들로부터 추가지원을 받았다. 또한, 많은 동문들의 호응으로 기부금이 크게 증가하여 예년보다 많은 학생들이 선발되어 수상했다.

2023년도 장학생과 후원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전주현(Bedford High School) 한국 보건산업진흥원
- ▶김영인(Wilbur Cross High School) 이명진 변호사 사무소
- ▶이세인(Concord-Carlisle High School) 윤희경
- ▶선우리안(Medford High School) 이익인, 신상철

- ▶류한나(Wellesley College) 박영철, 이재신 기금
 - ▶김우연(Yale University) 정선주, 이재신 기금
 - ▶차운태(Harvard Business School) 이재신 기금
 - ▶오정석(MIT) 이희규
 - ▶권영수(Harvard Law School) 이희규, 장용복
 - ▶오인환(Boston College) 김제호, 윤상래, 윤용훈, 임효순
 - ▶김유나(New England Conservatory) 김용구, 이강필, 보스턴한미예술협회
- 취재=이경애(인문73)**

필라델피아

지부 창립 50주년 기념집 제작 논의

정기 총회 30여 동문 참석 빈민가사역 이태후 동문 특강

필라델피아 지부 정기 총회가 지난 6월 3일 갈보리 비전 교회(Calvary Vision Church)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은 팬데믹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아서인지 평소보다 좀 적은 3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정기총회와 2부 특강, 3부 저녁 만찬과 경품 추첨 순으로 이어졌다.

정기총회에서는 이종태 회장의 사업과 재정보고에 이어 필라델피아 지부 창립 50주년 기념집 제작에 관한 안건을 놓고 토의가 있었다. 이어 이성숙 전임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했고, 심희진 신임회장의 인사말로 1부를 마무리했다.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지난 6월3일 갈보리 비전 교회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마치고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2부에서는 이태후(인문대 83) 동문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삶”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태후 동문은 필라델피아 North

Central 지역 흑인 빈민가에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골목 청소를 시작으로 어린이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빈민가의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목사님으로

미주동창회보는 물론 미국과 한국의 여러 매스컴을 통하여 그 사역이 소개되었다.

이 날도 그간의 사역과 앞으로 있을 summer camp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들었고, Q & A 시간에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이 오고갔다.

3부에서는 저녁 만찬을 나누며 자연스런 친교의 시간을 가졌는데 경품 추첨 때는 대부분의 동문들이 하나씩 받은 가운데, 여러 개를 받은 행운의 동문들이 못받은 동문들과 나누며 훈훈하고도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동문들은 가을에 있을 추계 골프대회 때 또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움을 뒤로하고 헤어졌다.

취재=심희진(음대 90)

연영재 회장 “동문 참여와 화합 위해 최선 다할 것”

뉴욕

정기총회서 새 집행부 출범
동문, 가족 등 60여명 모여

뉴욕 동창회가 지난 7월 15일 뉴저지 Double Tree Hotel에서 이사진, 일반 동문, 가족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정기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44대, 45대 회장단 신규 임원 교체식이 열려 신입 임원 인준이 참석 동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45대 집행부 인준을 마친 금영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2년간 동창회 회장을 맡아 매우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웠는데 임기를 마치니 한편 아쉬운 마음도 든다”며 “여러 동문들의 동참과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창회가 더욱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45대 동창회장으로 인준된 연영재(공대 74) 신입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뉴욕 동문들의 참여와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뉴욕 동창회의 발전을 위한 몇가지 핵심 목표를 밝혔는데 첫째 친목과 화합하는 동창회, 둘째 젊은 동문의 영입, 셋째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45대 집행부의 주요 활동으로 꼽으며, 참석 동문들의 지지와 호응을 끌어냈다.

연 회장은 이와 관련 하반기 행사계획으로 가을 야유회(9월23일), 추계골프대회(10월12일), 음악회(11월12일), 2023 송년의 밤(12월2일) 등 다달이 열리는 굵직한 4가지 동문 행사를 발표해 박수를



뉴욕 동문들이 지난 7월15일 뉴저지 더블 트리 호텔에서 열린 2023년 정기총회를 마친 후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연영재 신입회장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악수하고 있다.



음대출신 이준희, 마주영, 최종원 동문이 함께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를 부르고 있다.

받았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NY 지역 동창회가 더욱 번창하시길 바란다”며 새로 출범하는 뉴욕지역 동문회 집행부에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이 회장은 축사 중 뉴욕에서 레지던트와 Fellowship을 마치고 Teaching Staff로 근무하면서 8, 9년 살았던 추억을 잠시 떠올리며 “앞으로 각

지역 동창회를 방문해 소통과 유대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의 뉴욕 방문에는 17대 미주동창회에서 사무총장을 맡은 아내 김경숙 동문도 동행했다.

새 집행부 격려사를 맡은 김영덕 수석고문은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88세)에도 불구하고 천진난만한 소년의 미소를 띄우며 “우등상도 중요하지만, 개근상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여러 모임에서 참여의 중요성을 역설했고 저 역시 가능하다면 개근했다”며 “여러 동문들도 꼭 개근하시라”고 강조했다.

3부 순서로 마련된 축하음악회는 이준희 음대 동창회장이 맡아 진행하였다. 황소희(08) 동문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베이스 최종원(08) 동문의 “비목”, 소프라노 마주영(15) 동문의 “산유화”, 이어 바리톤 이준희(95) 동문의 “가고파” 등 아름다운 선율이 행사장을 가득 채우자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앙코르가 터져 나왔다. 세 동문이 함께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열창을 끝으로 이번 행사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젊은 동문의 참여가 돋보인 가운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강병승(농생 86) 동문은 “행사를 통해 동문 간에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다지는 것이 동창 모임의 주요 목적이 아닌가 싶다”며 행사장 입구에서 일일이 참석 동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워싱턴주 장학생 9명 선발 당초 계획서 3명 더 늘려

8월12일 야유회서 수여

워싱턴주 동창회가 장학생 9명을 최종 선발했다. 동창회 장학위원회는 올해에는 일반 지원자 가운데 4명, 한국학을 전공하는 특별지원자 가운데 2명 등 6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우수한 신청자가 많아 일반 지원자를 7명으로 늘려 최종적으로 9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학생으로 선발된 주인공은 ▲대니엘 최(UW 인포매틱스) ▲김경현(UW 컴퓨터 사이언스) ▲민건우(예일대 컴퓨터사이언스) ▲미셸 신(UW 생물학) ▲브라이언 박(UW 역사학) ▲조이스 이(카네기 멜론 국제관계) ▲조슈아 이(UW 엔지니어링) ▲이바 쉘(UW 한국학) ▲매직 첸(UW 한국학)

등이다.

동창회는 오는 8월12일 오전 11시 벨뷰 뉴캐슬비치파크에서 열리는 여름 야유회에서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워싱턴주는 지난해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일반지원자의 경우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중에서 가정형편을 주요 고려대상으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학업성적 외에도 리더십, 운동, 음악, 미술 등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과 업적도 심사에 포함했다.

장학위원회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뿐 아니라 관련 전문분야 서울대 동문의 멘토링을 받을 기회도 제공한다”며 “내년에도 장학생을 선발하는 만큼 많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카고

성적 위주 장학생 선발 기준 재고 논의

시카고서울대동창회의 장학금 실행임원회의가 7월9일 한식당 부산갈비에서 열렸다.

황치룡 회장을 위시한 현 임원진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수여 예정인 장학금 관련 선발기준 및 세부 규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원들은 현행 성적 위주의 장학생 선발을 재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가정 형편에 여유가 있는 최상위 성적 보유자에게 여러 단체의 장학금이 집중되는 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수혜 대상에서 탈락하곤 한다는 것.

황회장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여기 저기 받는 것도 많아 체크를 현금화도 안 하더라”며 “이번 또는 다음 번 장학금 선발에는 성적 외 다른 기준을 적용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실행 방침으로 회장 직권의 장학생 선발 및 규칙 개정이 함께 검토됐다. 황찬주 임원은 “회장이 임원진의 동의를 얻어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과정이 번거롭지 않고 빠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장학사업이 돈과 직결된 문제만큼 시간이 걸려도 원칙대로 규정에 따라 처리함이 옳다”고 말했다.

규정에 문제가 있거나 시대에 뒤떨어졌다면 일단 규정부터 바꾸자는 것. 이에 자리에 모인 임원들은 동의 의사를 밝히고 추후 규정 변경을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물가를 고려한 장학금 액수 인상 및 지원 자격 제한, 관련 광고 제작 등의 안건도 함께 검토됐다.



미시간 지부 동문들이 잔디밭에서 열린 물풍선 받기(왼쪽), 줄다리기(오른쪽) 게임을 즐기고 있다.

대학생 마냥 웃고 떠들고 ... “40년은 젊어졌어요”

미시간

창립 1주년 총회 및 피크닉 게임 즐기며 ‘웃음꽃’ 만발

학번도 전공도 다르지만 동문회 이벤트에 참석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20대 시절의 순수했던 마음과 뜨거웠던 열정에 대한 그리움,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 싶은 것은 아닐지.

“40년은 젊어져 돌아갑니다.”

지난 6월 17일 Island Lake 파크에서 열린 서울대 미시간 지부 총회 및 여름 피크닉 행사 후 이영진(물리 68) 동문께서 나눠주신 소감이다.

피크닉에 참석한 우리 모두 다시 대학생이 된 마냥 웃고 떠들고 야외게임을 즐기며 30-40년은 거뜰히 젊어진 느낌이였다.

서울대 미시간 지부는 올해 창립 1주년을 맞은 신생 동문회이지만 단합력과 유대감에서 어느 지부에도 뒤지지 않는다. 최고령 박용화(의대 52) 동문에서부터, 회복중임에도 참석해 주신 권용일(공대 57) 동문을 비롯, 90학번대 동문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총 48분의 동문과 그 가족이 만나 서울대의 이름으로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집행부는 처음으로 야외에서 열리는 행사라는 점을 감안해서 한식 및 바베큐, 잔디밭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준비하였는데 그 누구도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에 웃음이 만발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추억의 마카레나 춤을 출 때도 어



미시간 지부 총회 및 피크닉에 참가한 동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합과 우애를 과시하고 있다.



미시간 지부 창립 1주년 기념 케익 커팅을 하는 이사님들. 왼쪽부터 이선희(문리 63), 고광국(공대 54), 고국화(공대 56), 조문희(공대 56) 동문

색함이 없이 즐거운 단체 댄스 타임을 즐겼고, 잔디밭에서는 발목고 달리기, 물풍선 받기, 사다리에 걸기, 줄다리기 등을 된장팀과 김치팀으로 나누어 팀별 대항전을 벌일 때에는 숨겨왔던 승부욕이 활활 불타는 시간도 가졌다. 결과는 김치팀의 승리!

또한 미시간 지부 창립 1주년을 맞아 점심식사 후에는 창립 1주년 기념 케익



다함께 추억의 마카레나 춤을 즐기는 동문들.

커팅 예식도 있었다.

행사의 마무리로는 미시간 지부 회장 이광진 동문(공대 81)이 추억의 노래를 불러보는 싱얼롱을 이끌었다.

마지막에 어깨동무하며 아침이슬을 다같이 부를 때는 마치 미시간이 아닌 아크로 광장에서 있는 듯한 진함 감동과 울림이 있었다.

학번도 잊고, 나이도 잊고, 일상의 시

름을 잠시나마 내려 놓고 아름다운 미시간의 대자연을 만끽하며 맛있는 음식과 신나는 게임을 즐기며 하나되었던 그날. 아쉽게 다음 행사를 기약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는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그리운 관악, 미시간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취재=신미나(사범대 91)

오인환 동문, 한미연합회 워싱턴 지회 창립

부회장에 최동호 동문

제12대 미주동창회장을 지낸 오인환(천문 63) 동문이 지난 6월22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소재 워싱턴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한미 연합회(America Korea United Society · 약칭 AKUS) 창립식에서 회장에 위촉됐다.

AKUS는 한미 동맹 강화와 자유민주주의 가치 보호를 목적으로 2020년 한국 본부가 설립되었고, 2021년에 미국본부가 설립됐다. 현재 미 전역에 30개 캠퍼스가 있다.

오인환 동문은 이날 창립식에서 “앞으로 사회, 문화, 교육, 기타 많은 분야에서 민간차원 협력을 통한 한미관계강화

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워싱턴 D.C. AKUS는 전 AKUS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며 워싱턴의 한국학 싱크탱크들과 연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의 부회장 겸 재무로는 최동호(지질 68) 동문이 위촉됐다.

취재=한정희(미대 81)



오인환 동문(왼쪽)과 최동호 동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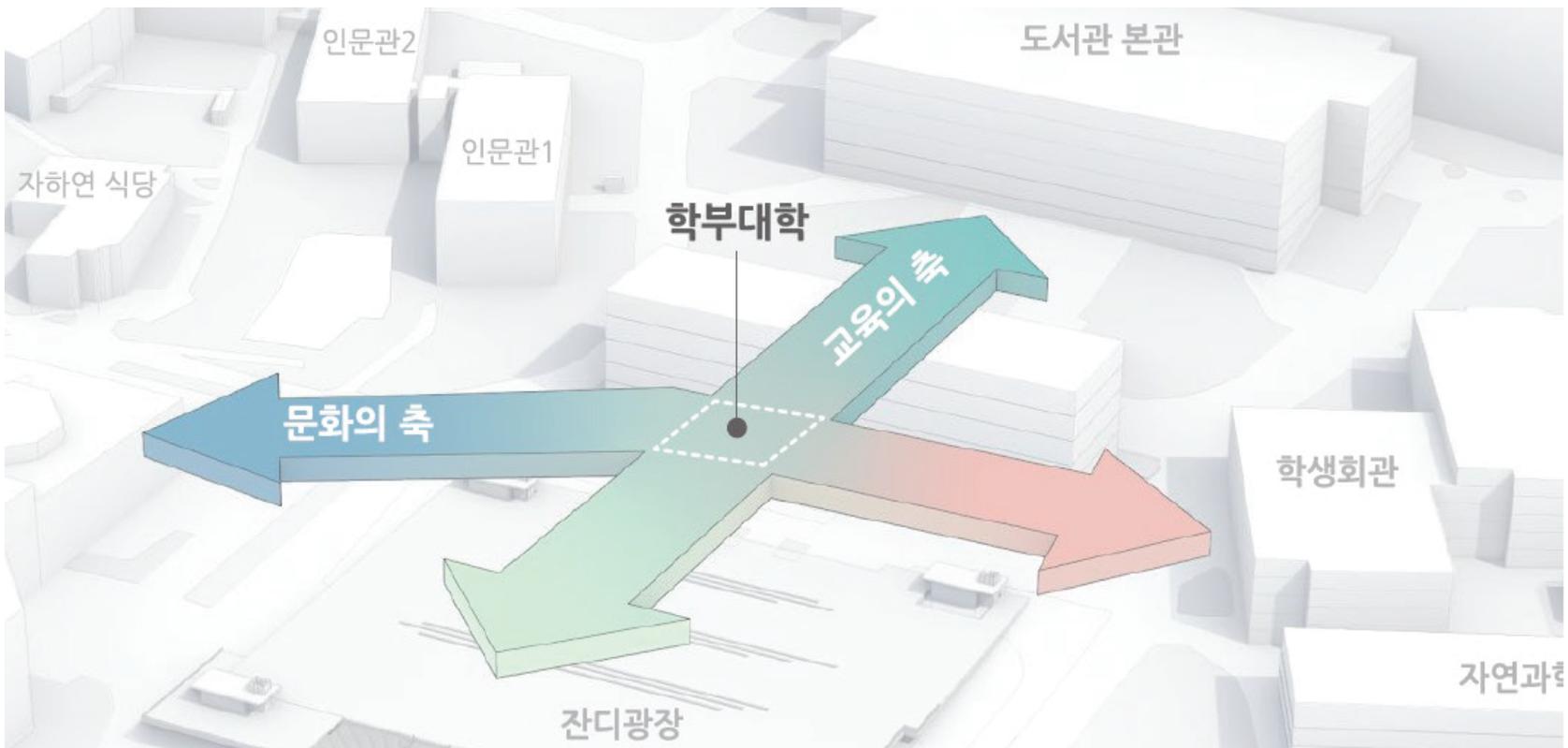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는 2025년 대학 종합화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혁신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서울대 발전을 위한 노력에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SNU Commons 기금

현재 행정관이 자리한 관악캠퍼스의 중심에 학부 대학과 SNU Commons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배움과 소통, 문화교류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공통된 역량과 창의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단 참여신청서 작성 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america@snu.ac.kr 로 메일 보내주세요
담당자가 참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SNU+50 미래전략 기금 간단 참여신청서

성 명: _____ 연락처: _____
 학과(특별과정): _____
 약 정 금 액: _____

Pay to the order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NJ | 222 Bridge Plaza South Suite 720' Fort Lee' NJ 07024 Tel +1-212-768-9144 Fax +1-212-768-4494 E-mail kenneth@klcpagroup.com
 LA | 2410 W. James M.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1-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SEOUL | SNU Research Park Main Building,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Tel +82-2-871-8004 E-mail snuf@snu.ac.kr

탱고 ... Half Time 에 마주친 새로운 세계

'Procrastination은 creativity의 원동력'이라 믿는 필자는 현재 (2023년 7월) 버지니아주 비엔나에 있는 집에서 시차와 감기 기운을 핑계로 데드라인을 벌써 여러 번 훌쩍 넘긴 글을 쓰고자 책상 앞에 앉아 있다.

이번 해의 첫 여행지였던 아르헨티나에서 보냈던 시간에 대해 글을 써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고 흔쾌히 오케이 했던 것은 무슨 객기였을까. 그래놓고는 왜 이토록 컴퓨터 앞에 앉아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무섭도록 버거웠을까.



이주희
(음대 89)

작년 12월 18일, 내가 사는 곳에서 멀리 않은 곳에 새로 생겼다는 찜질방에 가서 양머리를 하고 앉아 맥반석 계란을 우물거리면서,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로 프랑스를 꺾고 월드컵을 거머 쥐는 것을 보고, 나는 직감한다. 나의 2023년이 엄청나게 행복하게 시작할 것임을.

쉬어버린 목청을 달래기 위해 들이킨 식혜의 밥알들을 음미하면서 나는 그 몇 달 전 사두었던 12월 31일자 부에노스아이레스 행 비행기표를 핸드폰으로 슬쩍 다시 꺼내본다. 흠... 한 해를 축제분위기로 시작하는 건 또 색다르겠는걸.

지난 2년간 잊고 지냈던 "축제"라는 단어가 마치 신조어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매년 두 세 번 정도 멀리 떠나는 여행을 즐겨왔지만, 의도치 않게 주로 적도 윗 쪽으로만 돌아다니고 있었던 나였다. 그러던 내가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 가 보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글썽... '나비효과'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련의 사건/사고들(!)이 있었다.

그 첫 나비의 날개짓이라면 1989년1월, 서울대학교 운동장 벽에 붙여진 입학시험 합격공고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

그로부터 391개월 후인 2021년 8월 8일에 12명의 서울대 동문들이 당시 모교 동창회 워싱턴DC 지부의 총무일을 맡고있던 필자의 집에 모여 '아르헨티나 탱고 동호회'(공식명칭: 스누아아얏 SNUAAT)의 발족을 기념하게 되고, 또 그로부터 509일 후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향하는 비행기안에 앉아있었던 것이다.

미주동창회 워싱턴DC 지부에는 10개 내외의 동호회들이 있는데, 그 중 아르헨티나 탱고 동호회는 이 지역 동문 두 분(최원선, 화공 93 / 김량국, 생물교육

93)의 아낌없는 재능기부로 발족하게 되었다. MIT에서 박사를 받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중인 최 동문과 모교에서 박사를 받고 현재 Bioinformatics 분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동문의 헌신과 노고는, 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만 들 정도로 엄청나고 열정적이었다.

좁은 고사하고 일상생활 body language 조차도 어색해서 종종 코칭을 받았던 나로서는 이 두 분이 어떻게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어떤 춤 보다 어렵다는 아르헨티나 탱고를 내게 가르칠 수 있었는지 신기할 뿐이다. 사실 아르헨티나가 남미의 어디 쯤에 있고, 얼마나 큰 나라인지조차 모르고 반 백년을 살아왔었는데, 하물며 아르헨티나 탱고라는 춤에 대해서 알 리는 만무했다.

학력고사에는 주관식이 없었지만, 만약 '아르헨티나 탱고라는 건 어떤 춤인가?'라는 문제가 있었다면, 나는 아마 "뭔가 '뽕뽕' 거리고 '짹짹' 거리는 음악에 맞춰 입에 장미를 물고 왼쪽 오른쪽 도리질 하며 추는, 나하고는 안 어울리는 춤"이라고 대답했었을 수도...

내게 있어 모든 취미생활 (골프, 테니스, 바느질, craft, 다도, wine tasting, 마당일)이 그랬듯이 일단 뭐 하나 시작하면, 연습을 열심히 하기 보다는 그 시간에 나는 쇼핑을 한다.

탱고 드레스, 탱고 신발, 탱고 신발 끈에 구멍 뚫는 펀치, 신발 바닥 긁어주는 철 바늘 브러쉬, 탱고 신발 바닥에 털 엑스트라 스웨이드 패드들, 파라핀 왁스, foot spa, 페디큐어 재료들, 연습용 전자 반도네온(bandolico), 탱고 관련 서적들, 스페인어 교재 1, 2, 3... 그리고 나서 집에 있는 방 하나를 아예 연습 스튜디오로 만들 결심을 하고 벽들에 전면 거울들을 설치하고 연습용 ballet bar들을 사들인다.

첫 수업이 있는 지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나는 팅게라(Tanguera)로서 가질 건 다 가졌다. 이제 맘 먹고 연습만 하면 될 뿐.

'매주 일요일에 모여 두 동문들에게 아르헨티나 탱고라는 춤을 배웠다'라고 간단히 서술하기엔 우리 스누아아얏 동호회 모임은 더 깊고 넓었다.

아르헨티나라는 나라 이야기, 탱고의 기원과 변천사, 탱고의 에티켓, 까베세오/미라다 (cabeceo/mirada - 손을 앞으로 내밀며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어



탱고를 추는 이주희 동문. 이 동문은 지난해 한국에 머물 때 탱고를 배우며 대구 국제 탱고 마라톤에도 참석했다.

워싱턴DC 동창회 탱고 동호회로 입문 탱고 배우러 아르헨티나서 석달 살이 2년 만에 매혹적인 '탱고 여인'으로 변신 재능기부 최원선, 김량국 동문 열정 감사

요?" 같은 식의 초대는 아르헨티나 탱고와 관련이 없다. 멀리서 눈과 미묘한 제스처로만 하는 까베세오의 세계는 아직도 내겐 어려운 과제이자, 또 매력이다, 탱고에서 leader와 follower의 역할 및 dynamics, 춤으로서의 탱고, 음악으로서의 탱고, 시로서, 탱고, 탱고 작곡가들, 오케스트라들, bandoneon, 가수들, 댄서들, 탱고에 관한 영화들, 탱고를 추는 장소들(Milongas), 탱고인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탱고 journey...

그간 살아왔던 50년 동안 들어본 적 없고, 전혀 몰랐던 용어들, 지식들, 인물들이 나의 일상 생활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귀여운 고양이' 비디오들만 넘쳐나던 나

의 SNS 피드는 'anything tango' 가 땀머리기 시작했다.

첫 수업으로부터 4개월 뒤인 2021년 크리스마스 즈음에 다 함께 첫 밀롱가(Milonga: 아르헨티나 탱고를 추는 사람들이 모여 탱고를 추는 장소) 원정을 가자는 목표를 두었고, 드디어 12월 18일 다들 곱게 차려입고 메릴랜드의 체비체이스에 있는 밀롱가로 첫 견학을 갔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주변 탱고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탱고를 배우기 시작해서 1년이 지나도 밀롱가에 가보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종종한다.

실력도 문제지만, 밀롱가에서의 에티켓(códigos)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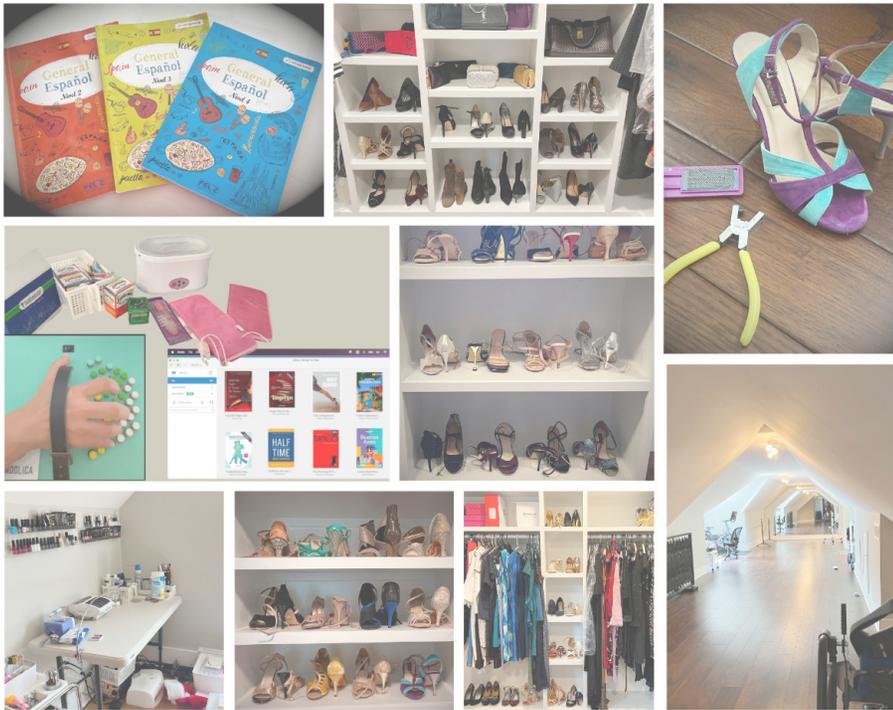
2021년 8월8일 발족한 탱고 동호회 '스누아아앗'에 모인 동문들.



최원선, 김량국 동문의 재능 기부로 이뤄진 첫 수업 현장.



첫 발을 댄지 4개월만에 곱게 차려 입고 밀롱가 첫 견학에 나선 동문들.



이주희 동문이 탱고 관련해 수집한 물품들이 방 하나를 가득 채웠다.

또 누군가의 인맥을 통해 자연스럽게 어울리게끔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첫 발을 떼어본 지 4개월만에 근사한 밀롱가의 테이블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며 아름답게 춤을 추고 있는 팡게라/팡게로들을 감상하면서, 그간 연습해왔던 탱고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전부 최 동문과 김 동문의 매주 계속되는 희생과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전 물밑작업을 덕분이었다.

4개월동안의 수업과 함께 2021년을 그렇게 마무리했으나, 2022년은 연초부터 여행이 잦아서 개인적으로 스누아아앗 모임에 참석을 많이 못하게 됐다.

여행하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령 섬인 테네리페에서 한 달 반 정도 보내다가 돌아온 후, 여러 개인적인 사정과 이유로 한국에 두 번 정도 나가게 됐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유학하기 전까지 쭉 서울 한 동네에서 26년을 살았지만 한국은 갈 때 마다 뭐랄까, 새롭고, 놀랍고, 재밌고, 또 고맙다.

k-pop, k-drama, k-goods 에 열광하는 비한국인 친구들이 내가 한국에 나가게 될 때 마다 부러워하는 것에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지만, 작년부터는 한국에 있는 여러 밀롱가들과 자신들의 평가 및 선호도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내게 알

려주는 미국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50년을 살아오는 동안 누가 내게 “한국과 관련된 단어를 몇 가지 대보”라고 했다면, “탱고”는 아마 1에서 백만까지의 순위에도 안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들어보니 한국에서의 아르헨티나 탱고 인구와 그들의 레벨 및 열정, 밀롱가와 페스티벌의 규모, 그 때문에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수가 감히 부에노스아이레스 다음 정도라 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스누아아앗 모임에 한참 나가지 못하다가 작년 4월에 한국에 나갔을 때 쯤 나의 탱고는 아직 ‘탱고관련 물품 수집 광’ 정도 밖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안 받아볼 수 있는 탱고 수업이 있는지 찾아보게 됐는데 놀랍게도 서울에서 아르헨티나 탱고를 배울 수 있는 수업을 고르는 것은 여수에서 낭만 포차를 고르는 것 만큼 쉽고 또 어려웠다.

선생님의 스타일, 학생의 규모, 레벨별 클래스, 스케줄, 장소, 공연 기회 등등을 따져가며 고를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한국에 있는 동안의 시간을 알차게 만들기 위해 그 동안 유튜브에서 종종 봐 왔던 선생님들의 수업을 이곳 저곳 골라가며 하루에도 몇 개씩 들어봤다.

탱고인들이 모여 연습을 하는 뿌락따가(practica - 막연히 혼자 연습하기보다

자신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지켜봐 주고 함께 해주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곳) 에도 찾아가서 내공을 쌓아보고 (내가 말하는 내공이란 상대방의 발을 밟거나 다리를 차더라도 움찔거리고 미안해 하지 않으며 편안한 얼굴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용기를 뜻한다), 아직은 민폐이긴 하지만 용기 내어서 몇 개의 밀롱가들도 가보고, 탱고 신발과 탱고 드레스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 가서 몇 켈레, 몇 벌씩 사다 보니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한국에 들고 들어갔던 것은 대부분 친구집에 놓아두고 오게 되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불붙은 나의 탱고 사랑이 캠프 화이어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할 때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나는 버지니아 알링턴에 있는 Pablo's Practica에 나가 보게 되었다.

미국 사람들이 하는 클래스나 뿌락따가에 나가는 것은 아직 어색했었지만, 처음 한 두 분과 연습을 해보고는 알았다. 아, 한국 물을 먹은 나, 이 물에서 놀아도 손색이 없구나, 크~ 8월에 다시 한국에 나가게 됐을 때는 지난 번 배웠던 교훈을 되새기며 거의 빈 가방들 몇 개를 들고 갔다. 그리웠던 클래스메이트들도 다시 보고, 이제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서 여러 밀롱가에도 혼자 가보고...

서울을 벗어나서도 탱고 인구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두 번째 한국에 나갔던 8월에서 10월까지의 전국의 밀롱가들을 둘러보고자 서울, 분당, 대전, 광주, 마산, 창원, 대구의 밀롱가들을 찾아가 보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더욱 밀롱가에서 자신있게 까베세오를 받고 춤을 출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는데, 근자감으로 일생을 살아온 나, “뒤뚱거리며 우물쭈물하는 게 미국 탱고 스타일인가봐~” 하는 믿음을 주고 다음 도시로 떠나곤 했다.

대구 국제 탱고 마라톤 (DITM)에도 참석을 해보았다. ‘탱고 마라톤’이란 특정 기간 동안 하루 몇 시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탱고를 출 수 있도록 다양한 디제이들과 음악들로 구성된 탱고인들의 이벤트이다.

여기에 레슨이나 쇼, 연주, 워크샵 등이 포함되기 시작하면 ‘탱고 페스티벌’로 불리게 된다.

대구 마라톤에서 만난 전국 및 세계

각지의 팡게라-팡게로들과 페친-인친 (Facebook/Instagram friends)이 되었고 아직도 그들과 활발히 소식을 주고 받고 있다.

한국 탱고 세계에서 조금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하면 모두 닉네임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걸 천리안-나우누리 시대 때부터 존재하던 한국 인터넷 동호회 문화의 영향인 것 같다.

처음 수업을 듣거나 밀롱가에 가게 되면 “닉이 어떻게 되세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에는 “니기 어떻게 되세요”라고 이해하고, “니기”라는 전문 탱고 용어가 있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주희” 보다는 “캣스터 (catster)”라는 닉으로 더 많이 불리고 익숙해져 있다. 종종 캐스퍼, 캣, 캣츠, 캐스천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내버려둔다. 나는 내가 누군지 아니까.

뭘 배우고자 하면 한국 만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이 드물다는 게 내 신조다.

그게 아르헨티나 탱고가 됐건, 스페인어가 됐건, 바느질이 됐건, 골프가 됐건. 그래서 나는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 탱고 선생님을 찾고, 스페인어 학원을 끊고 골프프레슨을 받는다.

그런데, 한국에서 접하는 아르헨티나 탱고 그리고 탱고 선생님들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여행기,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듣게 되는 아르헨티나만의 독특한 액센트, 이런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적도 아래의 나라 아르헨티나로 향하게 했다.

탱고를 접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나라, 아르헨티나. 나는 델타 웹사이트를 열고 티켓을 구매하면서 피식 웃는다. “팡또 (팡고 또 라이) 등극이요~”

(아르헨티나 생활기는 다음호에)

이주희 동문은

1989년 음대 입학, 1995년 동대학원에서 음악학 석사를 받은 후 도미,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정보 보안 전공으로 Master of Information Systems 을 받았다.

졸업 후 Honeywell에서 Information Technology 부서와 Internal Audit에서 일했고 그 후 Ernst & Young에서 Technology Risk 컨설팅과 감사부서에서 일하다가 2020년 Partnership 8년차에 들어서면서 은퇴를 결정한 후 인생의 후반전을 디자인하며 살고 있다.

1분 늦어서 1500달러 쓴 추억의 평의원 회의

“난감한 일이 생겼네요. 셔틀이 우리 6명을 남기고 떠났네요. 엘에이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주동창회 평의원 회의를 마치고 LA집으로 돌아가던 지난 6월11일 오전 임춘택(상대 68) 동문으로부터 받은 카톡이었다.

우리도 카풀 차가 만원이라 다른 동문들을 수소문했으나 여의치 않았고 얼마 후 차를 렌트했다는 카톡, 그리고 한참 지나 밤 10시쯤 집에 잘 도착했다는 카톡을 받았다. 그 사이에 벌어졌던 적잖은 웃픈 사연들은 임 동문이 이번에 글을 보내오면서 알았다.

오늘은 제32차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가 주최하는 평의원 대회를 마치고 각자의 집으로 되돌아 가는 날이다.

이틀동안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미주동창회장 이취임식 행사와 음악회,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개인 개인은 카지노에서 돈을 따거나 잃어 버리기도 하고, 골프를 즐기기도 했다. 아침 뷔페는 그 전날 아침보다 훌륭했다. 일인당 \$60 이상 페이하셨다니 아침치고 비싼음식을 먹은 것 같다.

이번 여행은 직접 운전하기보다는 편안하게 관광버스나 셔틀버스로 다녀오리라 일찍부터 마음 먹다보니,

연세 있으신 대선배님들과 같은 차를 타고 왕복하게 되었고, 내가 도움을 드려야 할 입장이었다.

LA에서 라스베이거스까지 갈때는 별 문제없이 편안히 도착했다. 다시 LA로 돌아오는 것도 미리 표를 사두었고, 셔틀 버스 정거장까지의 거리도 5분이면 갈 거리(3.5 마일)이니, 10시 20분에 호텔에서 출발해서 11시 셔틀 출발시간을 맞추는 것은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10시 반에 호텔에서 세 부부가 함께 택시를 탔다. 한참 서로 얘기를 나누다 보니 택시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게 아닌가? 다시 셔틀의 출발지를 확인해 보니 잘못 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방향을 틀어 올바르게 가는데, 트래픽도 막히고 11시가 막 지나서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러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셔틀버스는 없고 저멀리 프리웨이에 접근하는 셔틀버스의 뒷 모습만 흐릿하게 보였다.

갑자기 난감한 상황에 접하니 모두들 당황하고 말았다. 모두 아무 생각이 없다.

LA 본사 전화번호를 돌려보니 안내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떠난지 1~2분밖에 안되니 셔틀버스를 되돌아 오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300달러를 추가 지급하겠다고 오퍼를 넣었는데도 거절 당했다.

"셔틀이 우리 6명을 남기고 떠났네요"

렌트한 게 하필이면 벤츠 중형 신차
선배 부부 4명 모시고 비 뚫고 산 넘어

오후에 출발하는 차도 만원이기에 다음날 오후 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통명스럽게 얘기한다. 더 이상의 실감이는 의미가 없다 싶어 전화를 끊었다.

여러가지 공리를 짜보는 가운데, 먼저 17대 임원들이 사용하는 카톡방에 긴급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

답장이 없다. 한 두 사람도 아니고 여섯명을 함께 태워다 줄 차량도 없으니 카톡을 받은 임원들도 난감한 입장이었

속에 키가 있으니, 찾아서 운전 하고 가란다.

이미 크레딧 카드를 주었으니 이젠 사기를 당해도 어쩔수 없다. 안내해 준 주소로 택시를 타고 렌트카를 찾으러 갔다. 라스베이거스 공항 근처에 차 몇대 두고 운영하는 소형 렌트카 회사다. 차를 보니 12인승 벤츠 중형차다. 높이가 11피트가 넘고 출고 된지 2~3개월 밖에 안 된 새차다.



지난 6월 라스베이거스 평의원 회의에 참석한 임춘택 동문 부부. 임 동문이 렌트해 엘에이까지 몰고 온 12인승 벤츠 중형차.



을 것이다.

잠시후 백옥자 동문의 카톡 답장이 왔다. 자동차를 렌트해서 가란다. 맞는 말씀, 답장해준게 고맙다.

마냥 길거리에 우두커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호텔 카지노로 우선 자리를 옮기고 방법을 간구해 보기로 했다. 카지노 안내분들의 도움으로 몇 개의 렌트카 회사의 온라인 주소와 전화 번호를 받았다. 큰 렌트회사는 6인 이상이 탈만한 밴이 없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형 렌트카 회사와 전화 연결이 되었다.

LA까지 갈 수 있는 12인승 밴이 있는데, 왕복 요금 1200달러 플러스 기름값을 내란다. 가격 때문에 실감을 하다가 달을 못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 비행기를 타고 가자, 총알 택시를 타자, 유출을 빌리자, 그레이 하운드를 타자 등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열거해 보지만 이렇다 할 안이 나오질 않는다.

잠시 후 조금 전에 통화를 했던 렌트카 회사 사장한테서 전화가 왔다. 편도 요금 \$750에 기름값만 받을테니 빌릴 의사가 있느냐고 말한다. 선배님들과 상의하고 그 차를 빌리기로 했다.

렌트카 회사에 운전자의 면허증, 보험증, 크레딧카드 인포메이션 등을 주니, 어디 어디로 와서 어떻게 하면 그

다시 호텔 파킹장으로 되돌아와 두 선배님 부부를 태우고 떠나니 오후 두시가 넘었다.

차를 빌렸으니 이젠 LA까지 가야한다. 다른 때는 와이프의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번엔 나 혼자 드라이브를 해야한다.

새 차이어서 그런지 앞에 있는 대쉬보드가 정말 낯설다. 각종 기능은 다 있는데 어느 하나 틀어 볼 자신이 없다.

갑자기 썬 폭우가 내렸는데 와이프도 작동 못했다. 그 흔한 음악도 듣지 못하고, 지도기능(Map)도 틀지 못하고, 그냥 운전만 조심조심 한다.

평소 같으면 먹지 않을 레드불도 몇개씩 사가지고 졸음 운전엔 대비했다.

그래도 점심은 먹어야지 싶어 라스베이거스 초입에 있는 호텔에 정차하고 식당에 들어 갔다. 음식을 시키고 나니 그때서야 선배님들의 긴장도를 풀어나가 보았다. 맛있는 음식과 얘기로 화기에 애해졌다.

덕분에 선배님들, 사모님들과 말문이 트이게 되었다. 옆에서 와이프는 벌써 친해져서 서로 얘기도 잘 한다. 나도 긴장감이 조금씩 누그러진다.

다시 차를 타고 달린다. 같은 환경 속에 있으면 가까워질 수 밖에 없나 보다. 서로의 지난 얘기들, 부부로 맺어진 인연, 학교 때 얘기, 끝도 없는 얘기들이 이어지면서 오늘이 추억 속의 잊을 수 없는 한 장면이 될 거라고 얘기 한다. 정

말 쉬엄 쉬엄 오다보니 6시간이나 걸려서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한남체인 파킹장에 도착했다.

오늘이 아니면 차를 토잉 당했을 거라며 이채진 박사님 부부가 감사를 표시하며 내리셨다. 성악가이신 사모님의 노래를 들을 기회가 언제 있어야 할텐데 생각해 본다.

다시 LA를 향해 달린다. 행콕쪽으로 7~8년 전에 이사하셨다는 차종환 박사님 댁에 도착하니 저녁 아홉시가 넘었다. 차 박사님 사모님이 저녁을 사시겠다고 하셨지만, 피곤하여 전혀 생각이 없다. 얼른 가서 쉬어야지.

이젠 왔으니, 차를 어떻게 반납할 것인가? 월요일 오후 1시까지 반납하면 된다니 우리가 사는 곳 집 앞길에 파킹해 놓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몰고 반납장소로 갔더니, 엘에이 공항이 운영하는 공공 주차장이 아닌가? 들어가 보니 파킹 스페이스가 없다. 몇 번을 돌고 돌아도 빈 파킹장이 안 보인다.

2층에는 몇 개의 빈 파킹장이 보이는데 우리가 빌린 차의 높이는 11피트 이상이어서 높이에 걸려 못 올라간다. 그런데 이 차와 비슷한 차가 1층과 2층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비스듬하게 파킹되어 있지 않은가?

나도 그렇게 파킹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하고 파킹했다. 그냥 떠나려하니 뭔가 좀 찝찝하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와이프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가면서, 비디오로 찍은 렌트카 위치와 함께 1층에 파킹장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했노라고 설명까지 써서 렌트카 회사에 이메일로 보냈다.

몇분도 안되어 전화와 이메일로 난리가 났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서 토잉 된 적도 있었고, 그 모든 책임은 차를 빌린 사람에게 있다고 공갈 협박을 한다.

반납 차량을 받아 들일 파킹 장소도 마련해 놓지 않고, 공공 주차장에 파킹하라고 요구하니, 괴씸하다.

다시 돌아가서 차를 빼고 1시간 이상이나 빙빙 돌다가 겨우 빈 파킹장을 찾아 파킹을 마쳤다. 오전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많은 시간과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을 지출했지만, 귀한 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닌가라는 와이프 말을 듣고 보니 그 말도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사히 다녀온 라스베이거스,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다.

1분 늦어서 1,500달러 쓴 추억의 장소!

미국 지성 · 통합사상의 대가 켄 윌버를 말하다 은퇴 후 통합적 사고 위한 명상 수련 어때요?

워싱턴주 서울대 동문회 시니어클럽(회장 김재훈)이 매달 개최하고 있는 SNU포럼의 7월 세미나 주제는 통합심리학의 대가 켄 윌버(Ken Wilber)의 미래 종교를 중심으로 한 사상이었다.

LA에서 신경정신과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김자성(의대 79) 동문이 강사로 나와 '의식 연구 분야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리는 이 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인 윌버의 통찰을 우리 실생활과 연계해 알

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윌버는 의학과 생화학을 전공했지만 노자의 도덕경을 읽고 그 사상에 매료돼 동서양 정신문화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을 공부하고 통합적으로 정리해 현대인에게 필요한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왔다. 김자성 동문이 그의 사상과 책을 요약 소개하는 글을 보내왔다.



김자성
(의대 79)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시대에 혼재하는 세계 종교와 다원화된 전통에서, 그 속에 발견되는 귀한 가르침을 제련해서 소개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런 일을 한 대표적인 통합 이론가가 켄 윌버(Ken Wilber)이다.

그는 약관 24세 경 쓴 <의식의 스펙트럼>으로 자아초월 심리학계에 혜성처럼 나타났고, 그 이후 오십여 년 집중적인 집필활동으로 동서양의 모든 종교적 영적 전통, 서양 철학의 주요 사상 및 현대 심리학, 특히 발달 심리학의 정보 등을 종합한 통합이론을 제시해 왔다. 그가 가장 최근에 집필한 책이 <미래의 종교>이다.

그의 이론은 진정한 통합이론인지라 정신과학 영역뿐 아니라 일반 의학, 정치, 경제, 문화전쟁으로 요약되는 현재의 제반 문제의 이해에 적용될 수 있는 좋은 이론이다. 또한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 생활수련>은 개인의 전인적 발달, 진화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안내서이다.

그는 각 종교의 미래에 포함되기를 바라는 네가지 중요한 과제를 제시한다.

종교 가르침 재해석 돼야

첫째가 Growing Up, 즉 성장의 길이다. 성장에 대한 체계적 이론/발견은 최근 백여년 서구 심리학자들의 체계적 연구로 밝혀진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이미 2천년 이상의 고대 세계에서 성립된 지라 그 시

대의 세계관인 주술적 신화적 세계관에 기반을 둔 것들이다.

켄 윌버는 James Fowler의 <믿음의 단계>를 인용, 인지 발달에 상응하는 믿음의 방식이 달라짐을 소개하며 컨베이어 벨트처럼 개인의 발달 단계에 맞게 각 종교의 가르침이 재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이 줄어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인다.

즉 합리적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단계의 개인들에게 기존 종교가 적절히 재해석된 메시지를 주지 못하므로, '아기를 목욕물째 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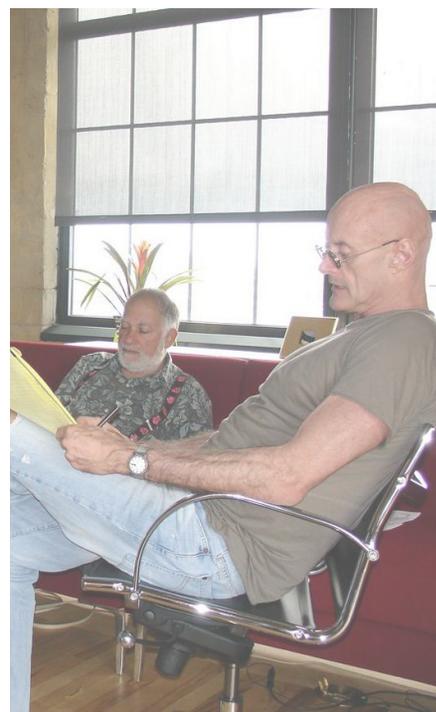
영적 체험 위한 수련 필요

두번째 중요한 과제는 Waking Up으로, 깨어남, 영적체험을 위한 수련의 필요성이다. 이 부분은 이미 동양 종교에서는 참선, 명상수련 등의 이름으로 잘 확립되어 있다고 보는데, 기독교의 경우 역사의 초기부터 영적인 체험을 하는 개인들을 종교재판, 마녀사냥 등으로 억압해 온 역사의 영향으로 거의 표층종교에 머물러 있기에 앞으로 특별히 강조되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나 이슬람의 종교가 문자적인 수준의 표층종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간의 상위의 발달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할 수 있는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기독교에서 QT 등 명상 수련에 해당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좋은 움직임일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Cleaning Up인데, 심리 정신치료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인간은 발달 과정의 매 단계에서, 그 단계에 고착되거나 혹은 반대로 기피, 알리지 반응 등으로 여러 종류의 심리적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에 노출돼 있기에 이 부분이 강조되는 것이다.

명상지도자겸 정신과 의사인 Roger Walsh는 수행자들과 일대일로 상담하는 경험을 통해 수행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의 80%는 대개 정신, 심리치료적인 문제들이었다고 보고한다.



통합사상의 대가 켄 윌버

통합적으로 삶 이해해야

네번째 영역은 Showing Up이다. 그의 이론에서 독특한 것이 사분면 이론인데, 우주정신이 우주에 현현하는 방식이 사분면으로 동시에 나타남을 얘기한다. 개인적 내면(일인칭 영역)과 외면, 집합적 내면(이인칭 영역)과 외면으로 나누고, 또 집단의 내외면을 합쳐 객관적, 삼인칭 영역으로 묶으면 삼분면으로 요약된다.

이는 철학의 세 주제인, 진(삼인칭), 선(이인칭, 우리 사이의 관계, 도덕), 미(일인칭, 내면적 주관적 면)의 각 부분에 상응하고, 또 불교의 불(일인칭, 깊은 나), 법(삼인칭, 객관적 법칙), 승(이인칭, 나와 너의 관계, 도덕), 혹은 기독교의 성자(일인칭의 깊은 나), 성부(이인칭, 영원한 너), 성령(삼인칭, 객관적 우주 정신) 등으로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또 칸트의 삼대 비판인 순수이성 비판(삼인칭, 객관적 이성), 실천이성 비판(이인칭, 서로에 대한 도덕), 판단력 비판(일인칭, 내면적)으로 상응할 것이다. 즉 우주와 인간의 삶을 이해할 때 이런 사(삼)분면, 즉 내면적인 정신, 또

두뇌 등 외면적 몸, 또 나와 너, 우리 사이의 관계, 또 객관적 사회제도나 기반 구조 등 모든 면들이 동시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말로 전인적인 접근법이다.

우리 인생 대부분 발달 단계

그는 이런 이론에 근거 <통합적 생활수련>을 매일 일상 삶에서 실천할 것을 권유한다.

역사의 전개를 큰 시각으로 볼 때, 전근대적 세계가 신화적이고 마술적인 단계였고, 현재의 세계는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 유물론적 세계관이 대표적이라면, 다가올 미래의 세계는 통합적인 단계에서 모든 것이 영적이라는 세계관, 그래서 고대의 지혜가 현대의 과학과 무리 없이 통합되는, 정말로 가장 정교한, 우주와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세계관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발달은 끝없이 전개된다. 그러나 대다수 개인들은 인생의 대부분 시간을 발달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살게 되는 게 현실인지라, 어쩌면 은퇴후가 이런 우주와 인간에 대한 이해와 더 깊은 개인적 성장, 영적인 깨어남 등을 위한 최적기일 것이다.

통합적 사고 이른 개인 약 5%

그에 의하면 현재 인간의식의 최첨단 성장관에 해당하는 <통합적 사고>의 단계에 이른 개인이 약 5%라고 한다. 또 역사적으로 성장관에 해당하는 부분이 10%에 이르면 획기적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통합적인 사고의 단계로 되는 노력이 있다면, 지금까지 사회계층 간에 극도로 분열된 문화 전쟁의 문제가 해결될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그의 통합적 생활수련에서 중요한 부분이 명상 수련인데, 사회의 의식 성장관에 해당할 수 있는 우리 동문들이 이런 명상수행을 통해 의식의 확대, 발달에 노력을 더한다면 전 사회적 규모의 의식의 성장, 발달에 힘을 실어주는 고귀한 일이 될 것이다.

미술관 · 박물관 · 규장각 · 도서관...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을 지나 왼쪽 오르막길로 조금만 올라가면 미술관이 나온다. 언덕에 있는 데다 거대한 역 7자 모양을 띠어 흡사 공중에 뜬 방주 같다.

미술관, 근현대 미술 800여 점 소장

2006년 ‘현대미술로의 초대’ 전을 시작으로 개관한 모교 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대학미술관으로 지상 3층, 지하 3층, 연면적 4485.9㎡ 규모를 자랑한다.

극사실적 물방울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열(회화48입)의 ‘회귀 1993’, 수묵 추상을 주도한 서세옥(회화46-50)의 ‘춤추는 사람들’, 추상 조각의 개척자 최만린(조소54-58)의 ‘O’, 단색화를 대표하는 윤형근(응용미술47입)의 ‘태운 암갈색-군청색의 블루’ 등 동문 미술작품뿐 아니라 모교 미대 초대학장을 지낸 장 발의 ‘작품1’과 모교 미대 교수를 지냈지만, 작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송병돈의 작품을 비롯해 장우성의 ‘청년도’, 장욱진의 ‘쌍수(雙樹)와 쌍희(雙喜)’, 독일 표현주의 작가 에밀 놀데의 판화 ‘여인’ 등 8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비록 그 수는 많지 않으나 한국 근·현대 미술의 궤적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작품들로, 회화 · 조각 · 드로잉 · 판화 · 뉴미디어 · 공예 · 사진 · 서예 · 디자인 등을 총망라해 가히 현대 미술의 방주라 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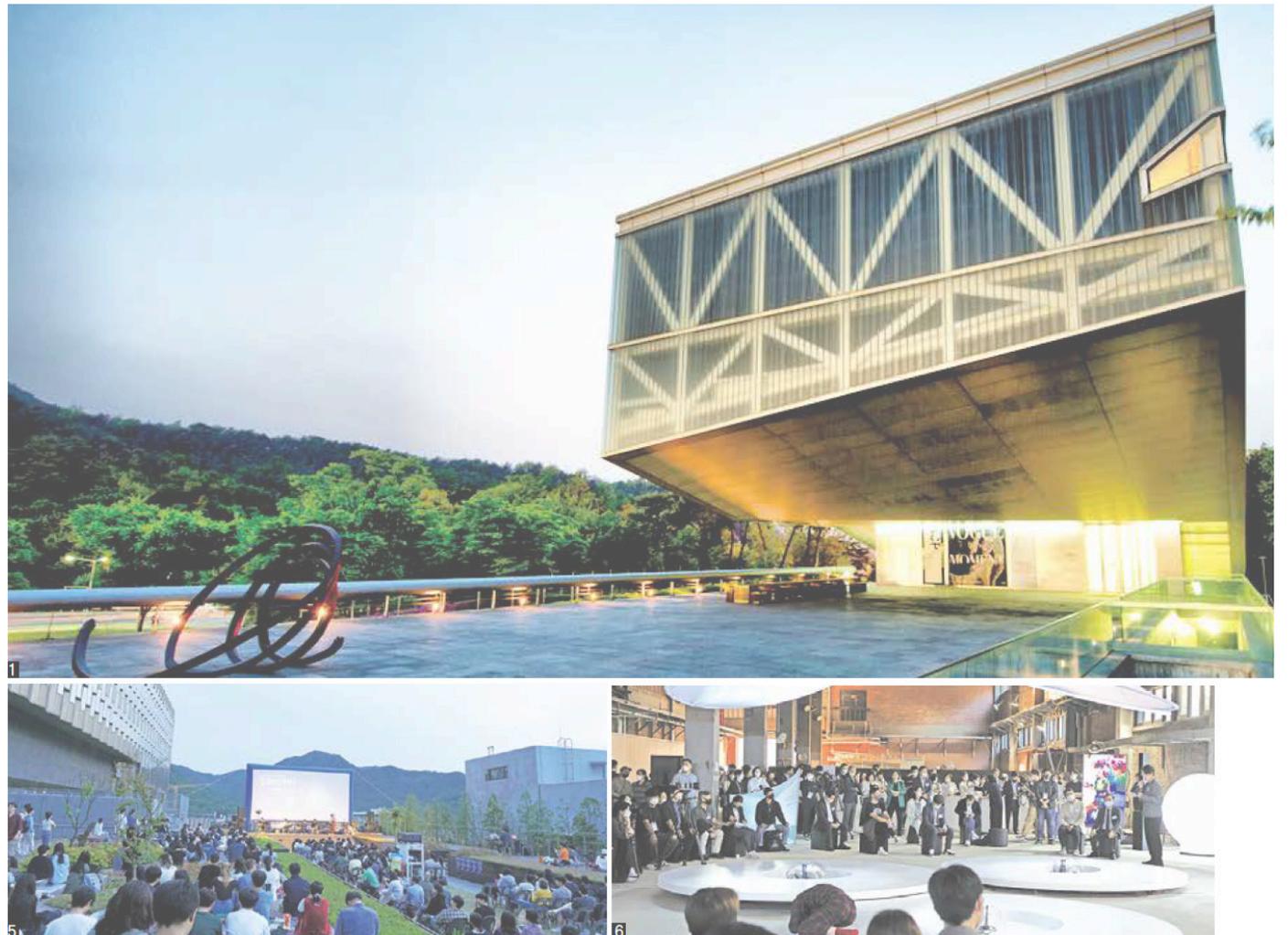
역 7자 구조는 또 출입구 앞으로 항상 넉넉한 그늘을 드리워 땀방 아래서도 선선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모교 미술관은 1996년 네덜란드 건축가 렘 쿨하스(Rem Koolhaas)가 설계해 2005년 7월 완공됐으며 외부 마감재로 U-Glass를 적용, 철골 트러스 구조가 밖에서도 보이는 독특한 외관을 하고 있다. 미술관으로 오는 마당엔 소규모 설치미술 작품도 종종 전시된다.

내부는 층별, 전시장별 각각의 공간적 특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돼, 일반적인 전시 · 공연장의 형태와 확연히 다르다. 꼭대기 천장부터 지하까지 쪽 뚫어 개방감을 극대화했고, 벽면을 겹겹이 둘러싸는 방식으로 전시 공간을 구분했다.

박물관, 100여 차례 발굴조사 수행

미술관을 나와 오르막길로 좀 더 걷다 대운동장을 끼고 돌면 도보 3분 거리에 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은 1946년 서울대학교설치령에 의해 경성제국대학 진열관의 소장품을 인수, ‘서울대학교부속박물관’으로 최초 개관했고, 1975년 관악캠퍼스 이전과 함께 ‘서울대학교박물관’으로 개칭했다. 1993년 10월 현재 건물로 이전,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6165㎡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의 현대미술부가 2005년에 독립, 이듬해 모교 미술관으로 개관했다.

1층은 고고역사실, 전통미술실, 인류민속실 등 3곳의 상설 전시실이 가운데



1. 2006년 국내 최초의 대학 미술관으로 문을 연 모교 미술관. 2. 고고역사실 · 전통미술실 · 인류민속실 등 3곳의 상설 전시실을 갖춘 박물관. 3. 규장각과 모교 한국문화연구소가 합쳐져 2006년 출범 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리는 관정도서관. 5. 도서관 옥상 별빛 영화제 전경. 6. 낡은 변전소 건물을 공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 파워플랜트.

순수예술에 대중 · 융합 문화까지 관악캠퍼스 문화 프로그램 풍성

대나무숲 중정을 둘러싸 전시실에서 또 다른 전시실로 드나들 때마다 녹음이 눈을 씻겨 줬다. 햇빛 아래 대나무숲을 마주할 때마다 과거의 시간 속에 깊이 빠져 있다가 물 밖으로 나와 큰 숨을 쉬는 듯했다. 덕분에 다음 전시물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은 물론.

박물관은 1961년 양주 수석리 유적 조사를 시작으로 전곡리와 오산리 유적, 백제 석촌동 고분군과 몽촌토성, 한강 일대의 고구려 유적 등 100여 차례가 넘는 발굴조사를 통해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고고학적 성과를 달성했다.

마침 2층 기획전시실에서 몽촌토성 발굴 40주년 기념전 ‘왕도한성’이 전시 중이다. 왕도(王都)는 왕이 거주하는 곳을 뜻하는데, 백제 왕도가 몽촌토성과 풍납동 토성, 두 왕성을 중심으로 주변에 왕릉, 일반 마을, 산성 등으로 확장됨에 따라 큰 성이라는 뜻의 한성(漢城)이라고 불렸다. 모교 박물관은 1983년 처음으로 몽촌토성 발굴조사에 착수해 1989년까지 조사를 주도했다. 이를 통해 백제의 첫 도읍인 한성의 위치와 구조가 밝혀졌으며, 초기 백제 고고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한성이 도읍이었던 백제는 한강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국내외 세력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백제 지방산 토기, 가야계 토기, 중국제 도자기, 왜의 스에키 등 다양한 유물이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것. 뼈로 만든 비늘 갑옷, 창날, 화살촉 등도 같이 출토돼 백제의 국제성과 개방성뿐 아니라 군사적 긴장 상황까지 엿볼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한강 유역은 고구려 · 백제 · 신라, 삼국의 각축장이었다. 몽촌토성에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중부 이남 진출의 거점으로 삼으려 했던 흔적은 물론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 지속적으로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확인된다.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조선시대 청자, 분청사기, 범자무늬 청화 백자가 이를 잘 보여준다. 8월 3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기획전시는 모교가 발굴에 참여한 백제 한성의 주요 유물과 함께 당시 현장에서 모교 발굴팀을 촬영한 사진들도 전시했다.

1층의 상설 전시실도 유물의 지속적 보존을 위해 정기 · 부정기적으로 전시물을 교체한다. 2023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조선 후기 도화서 화원인 진재해, 김홍도, 김득신의 산수화를 비롯해 조선 수군이 훈련하는 모습을 담은 ‘수군조련도 10폭 병풍’과 경남 진주의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진주도 10폭 병풍’ 등 새로운 유물을 전통미술실에 걸었다.

고고역사실에는 구석기시대 석기부터 발해의 불상까지 총 5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돼 있다. 연천 전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주먹도끼, 중국 연길 소영자 유적에서 수습된 골각기, 벼농사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여주 현암리 유적 농경 도구 등이 눈여겨볼 만하다. 이곳에 전시된 광개토태왕비 탁본은 거대한 실물 크기를 가늠해 고구려의 기상을 느끼게 한다.

인류민속실에는 국내 민속유물뿐 아니라 뉴기니 민속유물과 만주 지역 소수민족인 오로촌의 유물 등 다른 문화권의 민속유물도 전시 중이다. 이들 해외 유물은 국내 유일의 자료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규장각, 국보 8종 7175점 소장

박물관을 나와 대운동장과 16동 CSS(사회과학관) 사이의 좁은 길을 따라 죽 걸으면 삼거리 건너편에 군청색기와 건물이 나타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다. 1776년 정조 임금이 즉위하

캠퍼스 문화 공간 한나절 나들이



면서 발족한 규장각(奎章閣)에, 1969년 모교 문리대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문화연구소가 2006년 2월 합쳐져 출범한 기관이다.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등 국보 8종 7175점을 비롯해 고도서 18만2000여 책, 고문서 5만여 점, 책판 1만78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자료 및 원문을 검색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소장 자료를 열람, 복제할 수도 있다. 창덕궁 금원(禁苑)에 최초 창건된 규장각은 왕립 학술기관으로서 역대 왕의 글·글씨·그림과 왕실의 족보를 비롯해 국정 운영의 참고 자료인 국내외 전적(典籍)을 수집·보관하며, 서적을 출판하거나 왕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했다. 한때는 규장각의 신하가 왕의 친위세력을 형성하면서 국정 전반에 관여했으나 정조가 죽고 급속히 약화되면서 최고 자문기관의 역할도 상실했다.

구한말 개화기 땀 근대화 사업과 관련 있는 신서(新書)를 다수 구입, 관리했고 순종이 즉위한 1907년엔 주 업무가 국유도서 관리로 바뀌면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10만여 권의 책이 규장각으로 통합, 이관됐다.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으로 인해 규장각은 결국 폐지됐고, 소장 도서는 이듬해 조선총독부에 인수됐다.

1928년부터 2년에 걸쳐 규장각 도서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으로 이관됐고 1945년 8월 광복, 1946년 서울대학교가 개교하면서 규모나 보관 장소의 변경 없이 소관처만 서울대 부속도서관으로 바뀌었다. 1975년 관악캠퍼스 종합화와 함께 서울대 부속도서관이 확대, 개편되면서 서울대 도서관으로 바뀌었고, 중앙도서관 2층에 특별 서고를 마련해 규장각 도서를 보관하다가 1989년 현재의 규장각 전용 건물(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9568.6㎡)이 준공되면서 독자적 발전의 터전을 마련했다.

자료의 대부분이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져 온 것들이지만, 가람 이병기·일사 방종현·상백 이상백 선생 등으로부터 해방 이후 기증받은 6000여권의 문고본 고도서 또한 보유하고 있다.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고지도를 소장한 기관이기도 하다. 전국지도·도별지도·세계지도 등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지도가 있다. 특히 전시실 입구 벽면에 걸린, 가로 4m 세로 6.6m 크기의, 대동여지도는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낸다.

국가적 사업을 그림으로 정리한 ‘의궤’, 효명세자의 성균관 입학례를 그린 ‘왕세자입학도’ 등은 조선시대 생활상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은 이렇듯 풍부한 사료를 바탕으로 국내외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자료의 열람과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한국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 규장각 전시실에 가면 ‘바른 소리, 큰글’ 전을 관람할 수 있다. 15세기 훈민정음 창제부터 20세기 한글로의 전환까지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우리글의 활용 양상을 ‘세종어제훈민정음’부터 ‘용비어천가’, ‘훈몽자회’, ‘운음언해’, ‘악장가사’, ‘순원왕후어필봉서’, ‘간이벽온방’, ‘국문정리’, ‘조선어사전’ 등 생생한 사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시는 특별전과 상설전으로 나누어 개최하며, 특별전은 개교기념일을 전후로 하여, 상설전은 특별전의 일부 전시물을 교체하고, 주요 소장 자료를 전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9월엔 ‘소주의 세계사’ 북콘서트

규장각에서 나와 오른편 주차장 길을 따라 쪽 들어가면, 정면에 잔디광장이 펼쳐지고 그 너머로 학교 행정관이, 또 그 너머로 중앙도서관과 관정도서관이 나타난다. 10분 정도 걸어 거대한 기차모양의 관정도서관 안에 들어서면 1층 로비 한편에 관정갤러리가 있다. 차단기 바깥에 있어 도서관출입증이 없어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모교 도서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학기 중에 더 다양하다. 때문에 즉흥적으로 찾아와 자유롭게 관람해도 좋지만, 사전에 계획하면 더 알차게 즐길 수 있다. 한 학기에 한 번씩 중앙도서관 옥

상정원에서 개최되는 ‘도서관 별빛 영화제’는 그중에서도 백미. 쾌적한 관람이 될 수 있게 무료로 간식을 제공하고 방식과 담요도 빌려준다. 2학기엔 모교 예술주간과 연계해 9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모교 음대는 학기 중 한 달에 한 번, 매년 8회에 걸쳐 ‘화요음악회’를 개최한다. 49동 콘서트홀 약 360석이 매회 만석을 이룬다고. 모교 교직원 및 학생, 지역 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무료 공연으로, 국내외 저명 연주자들의 음악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서양의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관객들로 하여금 음악을 더욱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94년 1학기 ‘수요음악회’란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1996년 2학기부터 ‘화요음악회’로 개칭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연 일정은 서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단체 메일이나 모교 음대 홈페이지, 모교 음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강 시기에 맞춰 해당 학기 전체 일정을 공지한다.

모교는 순수예술뿐 아니라 대중문화, 융합문화에도 문호를 열고 학생들의 보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작년 7월 문화예술원을 설립했다. 문화관·파워플랜트·두레문예관·풍산마당 등 4개의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문화예술원은 ‘파워플랜트, 극장이 되다’란 타이틀로 작년 9월 프리 오프닝을 개최해 40년간 관악캠퍼스에 전기를 공급했던 낡은 변전소 건물이 새로운 예술공간으로 거듭났음을 알렸다.

우석경제관 근처 테니스장 맞은편에 있는 파워플랜트는 얼핏 보면 단층 건물에, 벽과 계단 곳곳에 금이 가 있어 폐교의 인상을 풍긴다. 오죽하면 ‘powerplant...it’s HERE’라고 현수막을 달았을까.

그러나 출입구를 찾아 계단을 내려가서 다시 내부를 보면 어디에 이런 공간이 숨어있었나 싶게 제법 넓고 천장도 높다. 작년 11월 ‘사이언스, 라이프, 아트 포럼’, 12월 ‘논바이너리: 다양성 행사’에 이어 올해는 ‘순환성: 국제심포지엄’, ‘리플랜트: 환경아트’, ‘리게티 탄생 100주년 기념 콘서트’ 등을 파워플랜트에서 개최했다.

미술관·박물관·규장각 등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학기마다 박물관은 매주 수요일 8회에 걸쳐 수요교양강좌를, 미술관은 매주 목요일 12회에 걸쳐 현대예술문화강좌를, 규장각은 매주 금요일 12회에 걸쳐 금요일민강좌를 연다. 미술관·규장각은 수강료 2만원, 박물관은 무료다.

나경태 기자

“스코필드 박사님의 ‘한국 사랑’에 보답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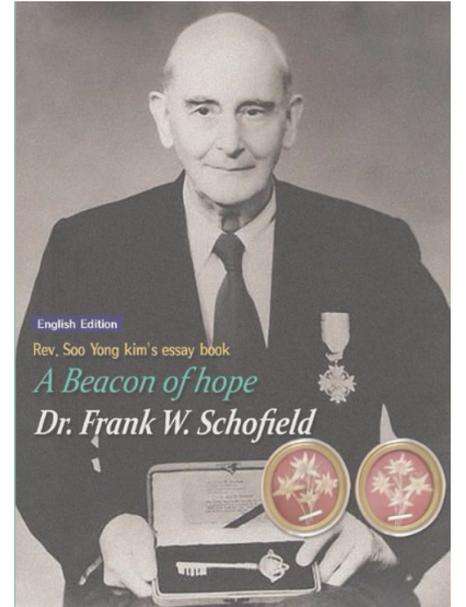
김수영
(사범대 57학번)

“A Beacon of Hope_ Dr. Frank W. Schofield”

김수영 동문의 영문 수필집 아마존 판매
삼일 독립운동 · 일제 만행 전세계에 알려
건국공로훈장 외국인 첫 국립현충원 안장

에 청년 29명을 집어 넣고 교회 주위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청년들을 모두 태워 죽이는 현장을 사진 찍어 세계만방에 일제 만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켜 우리나라 독립을 이루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그의 공로를 인정하여 문화훈장과 건국공로훈장을 수여했다.

의 수의학 연구소에서 각각 명예박사 학위를 받으면서 세계적인 수의학자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캐나다로 추방 당하기 전 써 두었던 원고 “An Unquenchable Fire(꺼지지 않는 불꽃)”를 복사하고 원본은 세브란스 대학 구내 창고 마루 밑에 땅을 파고 묻어두고 사본만 몰래 몸속



우리나라의 삼일독립운동을 도운 은인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분의 업적을 우리만 알고 간직하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아마존에다 책을 올리면 세계 어디서든 책을 사볼 수 있겠다 싶어 아마존에 올리기로 결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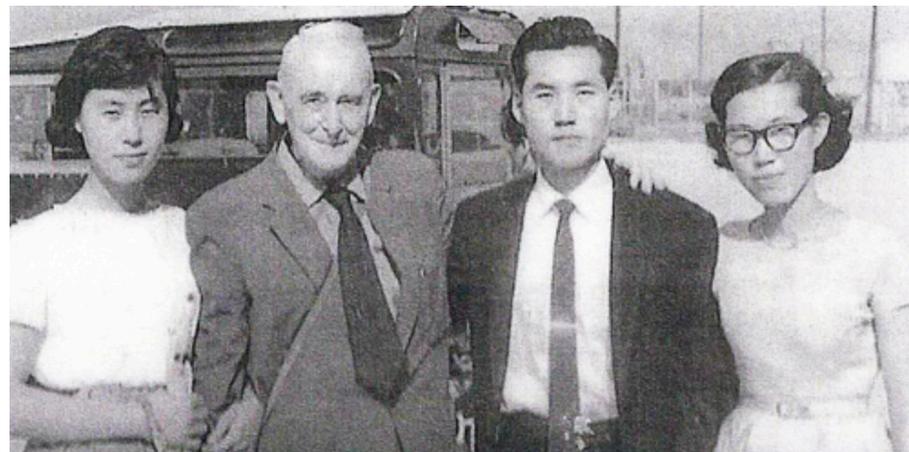
생각했던 것보다 아마존에서 요구하는 책 편집 규정이 까다로워 합격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에 도전을 거듭한 결과 드디어 성공했다.

내 책 이름은 “A Beacon of Hope_ Dr. Frank W. Schofield(희망의 불꽃_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님)”이다.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다.

조국의 역사와 육이오 전쟁과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36년간 압제 당한 것을 잘 모르는 2세가 많다고 한다. 2세들에게 캐나다 의료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오셔서 삼일독립운동을 도운 ‘한국인 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 스코필드 박사를 알게 함으로써 인생의 롤모델이 될 수 있고 그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명 받아 앞으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캐나다 토론토 대학 수의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수의학을 가르치고 계셨다. 같은 대학 교수였던 예비슨 박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세브란스 대학 교수로 계셨는데 공식 중이던 세균학 교수로 1916년 스코필드 박사님을 청빙하셨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1919년 3월 15일 삼일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현장을 목격하고 일본 군인과 헌병들의 무자비한 살상행위와 잔혹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세계만방에 알렸다. 특히 1919년 4월 15일 일본 군인들과 헌병들이 제암리 교회 안



김수영 시인의 오빠인 김동기 고려대 석좌교수(2년 전 작고)가 1960년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 전에 김포공항에서 스코필드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필자 김수영 시인, 김동기 교수, 스코필드 박사, 동생인 김영교 시인.

일본 군인들이 현장 사진을 찍는 스코필드 박사님을 미행해 거주지를 알아낸 다음 암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그 날 따라 스코필드 박사님이 연구실에 할 일이 많아 밤 늦게까지 연구실에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 후 일본은 외국인을 죽이면 세계여론이 좋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 1921년 스코필드 박사님을 캐나다로 추방했다.

캐나다로 돌아 오신 후 토론토 대학 켈프 수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그 당시 캐나다 농가에서 소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병이 발생하여 견잡을 수 없이 많은 소들이 죽어갔다. 흘리는 피를 지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속수무책 많은 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실험과 연구를 거듭한 결과 드디어 그 원인을 찾아내어 세계 수의학계를 놀라게 했다. 그래서 독일의 저명한 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고 캐나다와 미국

에 감추고 캐나다로 출국하셨다. 스코필드 박사님이 한국에 돌아 왔을 때 원본을 찾으려 땅을 팠으나 이미 분실되고 없었다. 수소문 끝에 원본을 찾았으나 원고는 많이 훼손되어 있었다. 300 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1장, 2장은 분실되어 있었고 곰팡이가 피고 표지는 찢겨져 있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원본을 복원하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결국 이 책은 출판되지 않아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300 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원고는 삼일운동의 목격자로 일본의 만행을 일거수 일투족 낱낱이 기록한 다큐멘터리 수기였다. 이책이 출판되었다면 세계노벨평화상을 타고도 남는 대작이 되었을 것이다.

그가 한국에 다시 돌아 왔을 때 6.25 전쟁 후 불쌍한 고아들과 고학생을 돕기 위

하여 모금운동을 벌였다. 세계각국에서 많은 장학금을 받아 고아들을 돕고 장학금을 지급하며 학업을 계속하도록 도우셨다. 그 중 한 사람이 전 국무총리였던 정운찬 박사님이다.

그 당시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 계속 공부할 수 있었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한다. 정운찬 박사님은 ‘스코필드 박사 추모재단’을 한국에 설립했고 스코필드 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사업은 계속되고 있다.

저는 1958년 스코필드 박사님을 처음 뵈게 되었다. 영국에서 오신 교환교수님을 뵈러 갔다가 서울대 의대 교수회관 복도에서 스코필드 박사님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드리고 나 자신을 소개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과를 다닌다고 말씀드렸더니 영어를 잘 하겠다며 통역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소아마비로 왼팔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어 지팡이를 짚고 겨우 서 계셨다.

몸이 매우 불편해 보여서 기꺼이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다. 그 후 시간날 때 마다 찾아뵈고 통역일을 도와드리고 세계 각국에 장학금 모금 편지 쓰는 것도 도와 드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친근한 사이가 되어서 Uncle이 되어주시겠다고 편지 끝에는 항상 “Love from Uncle Frank”라고 써 주셨다. 너무나 인품이 훌륭해 뵈올 때 마다 감동을 받아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 그분이 나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잊을 수가 없다.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snuausa30@gmail.com 로 보내주세요.





이강덕
(정치학과 82)
한미클럽 회장

국익 앞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

중국과 소련은 1969년 국경 분쟁을 벌였다. 동부 국경지대 우수리강의 전바오섬(소련명 다만스키)의 영유권을 놓고 싸워 서로 100명 가까운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 까닭에 그 하류에 있는 소련의 무역항 블라디보스토크는 1990년대 초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가 들어서기까지 중국인들의 접근이 어려웠고 지금까지도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가 중국의 경유 항구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중국 동북지역의 상품들이 쉽게 해외운송에 나설 길이 열려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게 됐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가 원래 중국 땅(중국명 해삼위)이었다가 1860년 베이징조약에 따라 러시아에 빼앗겼었다는 점을 들어 ‘러시아의 곤궁한 처지가 드러났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구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의 무역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미 중국 화물선들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는 중러관계가 중국 주도

로 전개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임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에 거듭 SOS를치고 있고 중국은 이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를 순방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해 5월에는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5조원 가까운 유무상 원조 계획을 밝혔다. 융자 지원도 있고 무상 원조도 있다. 과거 사회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의 역할을 중국이 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과 러시아의 관계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크게 변했다. 러시아의 외교적 고립은 지난 몇 년 사이 격세지감의 수준으로 심각해졌다. 가스 등 에너지 리시리아에 의존하던 독일 등 유럽 주요국들은 주요 수입선을 다른 국가로 돌렸다.

외교, 경제 관계의 단절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놓고 사실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빈번하게 왕래하고 러시아의 값싼 에너지를 칭찬하던 불과 2, 3년 전의 모습과도 크게 다른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다방면에 걸친 갈등이 계속되면서 서방국가들과 중국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물론 그 변화의 근저에는 각자의 국익에 대한 계산

이 깔려 있다. 한때 유럽 국가 중에 중국의 경제력을 앞장서 평가했던 이탈리아는 가장 먼저 탈중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집권한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과거 정권이 참여를 공식 선언했던 중국의 일대일로에서 이탈할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의 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 ‘대만 문제에도 중립’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의 결과는 예상보다는 대중국 견제조치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G7을 미국이 주도해왔고 그 충실한 우방국인 일본이 주최하는 회의였지만 경제 관련 노골적인 봉쇄방안들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중국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따른 도전, 경제 감압, 국가 안보를 위협할 특정 선진기술 보호 등 당연히 중시돼야 할 국제 규범사항들을 강조하는 데 역점을 뒀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G7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디커플링(관계 단절)이 아닌 디리스팅(의존도 낮추기)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제품에 대한 중국 시장의 역할과 공급망 사이의 얽힌 수준을 고려할 때 디커플링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직접 언급했다.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미국과 중국 간 교역액이 6906억달러로 집계됐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3829억달러이다. 교역액이나 적자액 모

두 사상 최고치다. 뉴욕 타임스는 ‘많은 기업들이 세계에서 공장이 가장 많은 중국과의 관계를 끊을 의사가 없거나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미국 정부가 공급망을 재편하고 첨단산업의 디커플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은 과도기적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무역 규제가 없었다면 미국의 적자 규모는 훨씬 더 커졌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미국에 유리한 국면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미국 정부와 뚜렷하게 손발을 맞추고 있다. 지난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양국은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프렌드 쇼어링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양국 관계를 정의했다.

바이든 대통령을 히로시마로 초청한 기시다 일본 총리도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수준으로 대미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 모두 중국과의 관계를 구태여 배척할 필요는 없다.

6월 초 제주포럼 기조연설에서 한덕수 총리는 “중국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이며 한중일 정상회담이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등 중국과 일본의 회의 참가자들은 한중일 3국의 협력을 통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역설했다. 관계는 변화한다.

국익 앞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얼마전 군입대 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때가 재소환된 건 한 유명가수의 소송이 계기가 됐다. 바로 유승준이라는 90년대 한국의 팝무대를 석권하다시피한 아이돌 스타다.

군대를 간다고 뺑쳐놓고는 슬그머니 미국에 와 시민권을 취득, ‘스티브 유’가 된 인물이다. 병역 기피자 ‘유승준’은 입국이 불허된 것이다. 벌써 20년이나 흘렀다. ‘유승준’은 안되지만 미국인 ‘스티브 유’는 찻값을 충분히 치렀다고 생각했는지 한국 고등법원이 그에게 입국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스티브에게 비자를 발급해 줄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에 상고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모처럼 ‘국방부 시계’를 옛날로 되돌려봤다. 논산훈련소 입소 때 해프닝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절로 난다.

시력측정 담당 기간병의 질문은 딱 하나. “안경 벗어. 이거 보이냐”다. 지독한

근시인데 차트의 작은 글씨가 보일리 만무. 당연히 “안보인다”고 할 수밖에.

기간병은 화난 표정을 지으며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내 뺨을 후려갈겼다.

그러고는 다시 막대기를 집어들고 차트를 가리켰다. 대답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다. “잘 보입니다.”

요즘 같으면 양심선언이다 뭐다 해서 난리가 벌어졌겠지만 그 시절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생각이 비슷했다. ‘군대니까.’ 그로부터 에누리 없는 만 36개월을 군대에서 보냈다. 그때 뺨을 몇 대 더 맞더라도 속된 말로 개겼으면 보충역에 편입돼 고시든 뭐든 할 수 있었을텐데. 그래도 아쉬움 따위는 없다. 군대를 갔다 왔으니 남자 축에 끼일 수 있다는 자부심이라고 할까.

‘스티브 유’의 나라 미국도 과거엔 병역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징집은 수정헌법 제15조를 위반한 거라며 소송을 건 사례도 있다. 멀쩡한 젊은 이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베트남 전쟁 때 징병은 혼탁의 극치

유승준 vs. 스티브 유

를 보였다. 오죽했으면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자서전 ‘나의 미국 여행기’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명문가의 자식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징집에서) 빠지고, 아니면 ‘샴페인 부대(champagne unit)’에 배치 받고...”

그가 꼬집은 ‘샴페인 유닛’은 대부분 주 방위군 소속 부대로 전투현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저녁마다 파티를 벌였다고 해서 생긴 군대 슬랭이다. 또래의 청년들은 정글에서 피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최강의 미군이 어떻게 베트남에서 수모를 당했을까. ‘채널링(channeling)’이라 불린 병무 행정이 화를 불렀다.

수천만명이나 되는 장정들 모두에 군복을 입힐 수는 없는 노릇.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채널’ 곧 경로를 만들었다.

엘리트들은 장래 미국을 책임져야 한다며 대부분 현역에서 뺏다. 심지어 병원 잡역부로 병역을 대신한 사람도 있었다. 그 난맥상을 짐작하고도 남을 터.

베트남에 파병된 병사들은 상당수가 가난하고 배움이 모자란 무지렁이들이었다. 화끈에 마약하고, 총질하고. 철군을 할 수밖에 더 있었겠는가.

징병제의 폐해를 지켜본 리처드 닉슨은 베트남 철수와 모병제(직업군인제)로의 전환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대권을 잡았다. 지난 ‘테러와의 전쟁’으로 수만명의 전사자가 나왔는데도 이렇다 할 반전시위가 없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병사들이 투철한 프로정신으로 무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유승준은 나이가 38세가 넘어 한국군 입대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한국땅을 밟고 싶다면 방법이 아주 없는 게 아니다. 미국 군대에 들어가 한국 군무를 지원하면 된다. 각 군마다 다르지만 연방 규정엔 40대도 가능하다. ‘유승준’은 안되나 ‘스티브 유’는 환영할 것 같다. 그러니 진즉에 군대에 갔다왔어야지. 조영남(음대 66)도 3년을 꼭 채우고 나왔는데. 비록 ‘샴페인 부대’에 배치를 받았을망정.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고평광선(공대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약대60)
조지아 - 허지영(문리66)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간호68)
남가주 - 김일영(의대65)
남가주 - 노명호(공대61)
남가주 - 박창규(약대59)
남가주 - 서치원(공대69)
남가주 - 성낙호(치대63)
남가주 - 심화섭(약대61)
남가주 - 이기준(법대54)
남가주 - 이흥표(의대58)
남가주 - 한홍택(공대60)
남가주 - 벤자민 홍(문리53)
남가주 - 오드라 홍(음대70)
남가주 - 한귀희(미대68)
네바다 - 정상진(상대59)
뉴욕 - 김창수(약대64)
뉴욕 - 이정자(간호59)
뉴잉글랜드 - 박영철(농대64)
뉴잉글랜드 - 윤상래(수의62)
뉴잉글랜드 - 정선주(간호68)
뉴잉글랜드 - 최홍균(공대69)
북가주 - 김정희(음대56)
북가주 - 민병곤(공대65)
북가주 - 전해경(문리67)
시카고 - 이용락(공대48)
워싱턴주 - 양남주(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법대60)
조지아 - 김현희(간호59)
코네티컷 - 오인석(법대58)
필라델피아 - 김영우(공대 55)
필라델피아 - 이만택(의대52)

하트랜드 - 이상강(의대70)
하트랜드 - 김경숙(가정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故김원경(약대59)
남가주 - 김병연(공대68)
남가주 - 박인창(농대65)
남가주 - 박종수(수의58)
남가주 - 이종도(공대66)
남가주 - 이종묘(간호69)
남가주 - 정재훈(공대64)
루지애나 - 강영빈(문리58)
워싱턴주 - 김재훈(공대72)
워싱턴DC - 남옥현(경영84)
조지아 - 김경숙(사대64)
조지아 - 김태형(의대57)
필라델피아 - 신의석(공대53)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법대58)
故서영석(의대55)
故오재인(치대33)
故윤낙승(의대60)
강신용(사대73)
곽웅길(문리59)
권기홍(의대60)
권봉성(문리64)
김기형(상대75)
김대중(의대70)
김동훈(의대71)
김보연(간호63)
김상찬(문리65)
김성호(법대64)
김수영(사대57)
김재영(농대62)
김정빈(공대66)
나두섭(의대66)
류재풍(법대60)
박명근(상대63)

박용필(문리66)
박원준(공대53)
박윤수(문리48)
방명진(공대73)
백길영(의대58)
백만일(공대64)
서동영(사대60)
신건호(법대53)
신영찬(의대62)
심상은(상대54)
안병일(의대63)
오홍조(치대56)
이근선(공대67)
이명선(상대58)
이세열(사대57)
이승훈(상대74)
이청광(상대61)
이호진(간호74)
임낙균(약대64)
임용오(의대57)
전경배(의대69)
전희택(의대58)
정동구(공대57)
정임현(간호72)
정철룡(의대55)
제영혜(가정71)
조용원(문리66)
조한원(의대57)
차민영(의대76)
김중환(사대54)
김주환(공대66)
한기환(공대58)
한효동(공대72)
홍성선(약대72)
홍종화(약대74)

뉴욕

故김광호(문리62)
故한창섭(문리57)
강에드워드(사60)
고애자(음대57)

권영국(상대60)
김승호(공대71)
김영용(치대55)
김종률(사대51)
김한중(의대56)
김해암(의대52)
배정희(사대54)
서영숙(간호67)
석창호(의대66)
신응남(농대70)
윤종숙(약대66)
이강홍(상대60)
이기영(농대70)
이대영(문리64)
이영재(상대58)
이재덕(법대60)
이재량(상대61)
이전구(농대60)
이준행(공대47)
이태호(상대 58)
최수용(상대55)
최영태(문리67)
추재욱(의대57)
한태진(의대58)
허선행(의대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보건69)
故박경민(의대53)
김광수 (문리73)
고종성(사대75)
김문소(수의61)
김용구(공대66)
오세경(약대61)
윤선홍(치대64)
이의인(공대68)
전신의(문리57)
정정욱(의대60)
정태영(문리71)
조만연(상대58)

홍지복(간호70)
워싱턴DC
공순옥(간호66)
방은호(약대43)
박평일(농대69)
서휘열(의대 57)
오인환(문리63)
이내원(사대58)
이선구(문리65)
이윤주(상대63)
최재귀(미대63)
최지원(의대61)

미시간

故남상용(공대52)
장병진(공대61)
정태(의대 57)

샌디에고

임천빈(문리61)

북가주

강재호(상대57)
손석보(공대68)
윤정욱(약대50)
최경선(농대65)
한만섭(공대49)

시카고

강영국 (수의67)
심상구(상대63)
이재희(치대67)
장윤일(공대60)
조봉완(법대53)
최의필(의대53)
한재은(의대59)

오레곤

김상순(상대67)

이은상(상대52)
미네소타
강연식(사대58)
권기현(사대53)
김권식(공대61)
김태환(의대58)
남세현(공대67)
민흥기(문리61)
변우진(인문81)
조형준(문리62)
황효숙(사대65)

휴스턴

박진섭(의대67)

오하이오

김용현(경영66)
이지우(의대68)

워싱턴주

故김영일(공53)
이명자(간호74)
이희백(의대55)
임현민(공대84)

조지아

김용건(문리48)

커네티컷

故유시영(문리68)

플로리다

김중권(의대63)
임필순(의대54)

텍사스

박태우(공대64)
이광연(공대60)
조시호(문리59)

필라델피아

고병은(문리55)
김현영(수의58)
서종민(공대64)
손재욱(가정77)
신성식(공대56)
주기목(수의68)

하트랜드

김명자(문리62)
김시근(공대72)
배규영(사대68)
오명순(가정69)
이교락(의대53)

하와이

故최경윤(사대51)

알래스카

윤제중(농대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213-908-5586

www.snuaa.org
news@snuaa.org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4.6.30;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p>남가주 강춘자(간 69) 권기상(대 72) 권봉성(문 64) 김경자(미 60) 김난영(공 53) 김원탁(공 65) 김동산(법 59) 김범수(문 61) 김영덕(법 58) 김용채(문 61) 김일영(의 65) 김성호(법 64) 김정호(농 59) 김종표(법 58) 김종일(공 62) 김창진(공 77) 김태환(문 78) 김태윤(법 53) 김희창(공 64) 노명호(공 61) 나승욱(문 59) 박명근(상 63) 박부강(사 64) 박상원(대 20) 박용(문 89) 박인창(농 65) 박일우(의 70) 박임하(치 56) 박중수(수 58) 박찬호(농 63) 박동근(공 64) 배동완(공 65) 백옥자(음 71) 벤자민 홍(문 53) 서동영(사 60) 서명희(농 67) 서세진(음 62) 손기용(의 55) 송명국(문 81) 신동국(수 76) 신영찬(의 62)</p>	<p>양승문(공 65) 오찬수(약 57) 오형원(의 53) 유이중(농 74) 유석환(치 55) 윤희성(치 65) 이건일(의 62) 이기준(법 54) 이상무(의 56) 이서희(법 70) 이성자(간 76) 이소희(의 61) 이영현(간 70) 이용한(공 64) 이익삼(사 58) 이재권(법 56) 이정근(사 60) 이정화(공 52) 이준호(상 65) 이호(음 92) 임동규(미 57) 임문빈(상 58) 임석중(공 50) 장기창(공 56) 장대욱(음 57) 장동석(문 66) 장문섭(공 69) 장원경(미 73) 장윤희(사 54) 장정용(미 64) 전경배(의 69) 전원일(의 77) 정동주(생 72) 정예현(상 63) 정영웅(상 63) 정재형(약) 정철룡(의 61) 정혜령(간 72) 정환(공 64) 조경애(음 64) 조재국(농 67) 최복철(공 70)</p>	<p>최영구(상 61) 임동규(미 57) 한귀희(미 68) 한동수(의 60) 한성구(상 53) 홍성선(약 72) 홍선일(공 71) 홍수웅(의 59) 황건음(공 55) 황현상(의 55)</p> <p>뉴욕 강상진(의 53) 고애자(음 57) 김승호(공 71) 김영무(공 75) 김영웅(치 55) 김영휘(법 80) 김정희(간 69) 김종원(생 58) 김진자(간 60) 김창수(약 64) 김창화(미 65) 김용연(문 63) 김해암(의 52) 민인기(의 67) 리준우(음 65) 박은규(약 72) 배상규(약 60) 서충선(사 57) 신응남(농 70) 안태홍(상 65) 유인숙(간 63) 이강욱(공 70) 이충욱(농 69) 이충호(의 63) 이상근(상 84) 이흥우(공 50) 전병삼(약 54) 정동성(상 58)</p>	<p>조득환(의 61) 조종수(공 64) 조태환(상 56) 진봉일(공 50) 최영태(문 67) 최승웅(의 61) 한병용(문 71) 허선형(의 58)</p> <p>뉴잉글랜드 곽노균(상 51) 김경일(공 58) 박영철(농 64) 송미자(농 62) 이금하(문 69) 이은주(음 73) 이의인(공 68) 정선주(간 68) 정정욱(의 60) (고)주창준(의 50) 최선의(문 69) 한서동(의 61)</p> <p>네바다 김삼순(상 67) 김영중(치 66) 김용재(의 60) 정상진(상 59)</p> <p>미네소타 성유진 이창재(문 56) 주한수(수 62) 황호숙(사 65)</p> <p>미시간 고광국(공 54) 고선희(문 63) 김국화(공 56) 김정화(음 56) 남성희(의 56) 오동환(의 65)</p>	<p>장병진(공 61) 조병권(공 64) 주명순(간 64) 이성길(의 65)</p> <p>북가주 강재호(상 57) 김성철(공 82) 김정희(법 56) 남광순(음 64) 박성수(공 59) 박영훈(공 72) 신규영(공 64) 안호삼(문 58) 위장호(의 67) 이관모(공 55) 이성원(공 65) 이흥기(공 62) 이승래(문 66) 전병련(공 54) 정준임(간 67) 조태묵(사 60) 최경선(농 65) 홍병익(공 68)</p> <p>샌디에고 고경하(공) 남장우(사 56) 임춘수(의 57)</p> <p>시카고 강영국(수 67) 구경희(의 59) 김길준(의 59) 김규호(의 58) 김승주(간 69) 김윤하(공 66) 민영기(공 65) 박창욱(공 56) 송재현(의 45) 유기정(간 72) 육길원(사 59)</p>	<p>윤덕상(치 62) 이건정(공 69) 이시영(상 45) 이용락(공 48) (고)이윤모(농 57) 전현일(농 62) 최해숙(의 53) 황소냐</p> <p>알래스카</p> <p>오레곤 박희진(농 78) 최용성(의 55) 한국남(공 57) 한영준(사 60)</p> <p>오하이오 명인재(자 75) 박훈(공 74)</p> <p>워싱턴 DC 김기봉(공 63) 김기환(공 67) 김내도(공 62) 김영란(사 58) 김윤호(공 64) 김희주(의 62) 박찬모(공 54) 박흥우(문 61) 신경은(문 65) 유영진(인 74) 유영준(의 74) 이건형(수 54) 이내원(사 58) 이서구(문 61) 이선구(문 65) 이성배(수 57) 이영덕(사 61) 이진상(공 57) 임광록(간 72) 조병선(의 65)</p>	<p>정영자(사 56) 천건희(간) 최대영(의 73) 최재귀(미 63)</p> <p>워싱턴주 김교선(법 54) 안승적(농 59) 윤석진(문 64) 윤태근(상 69) 이길송(상 57) 이명자(간 74) 정영자(사 56) 최준한(농 58)</p> <p>유타 김인기(문 57)</p> <p>조지아 김종구(수 73) 김현희(간 59) 백낙영(상 61) 오경호(수 60) 이종석(의 54) 임수암(공 62) 최덕순(간 58) 한성수(의 54)</p> <p>캐롤라이나</p> <p>커네티컷 최창송(의 52)</p> <p>테네시 김경덕(공 75)</p> <p>텍사스 김장환(공 81) 박태우(공 64) 윤영주(문 60)</p> <p>플로리다</p>	<p>김성준(의 55) 서종민(공 64) 정의철(의 55) 이민우(의 67) 이만택(의 52) 하재청(문 67)</p> <p>필라델피아 강준철(사 59) 성정호(약 59) 유영걸(의 70) 윤정나(음 57) 이성숙(생 74) 이수경(자 81) 정홍택(상 61) 조정현(수 58) 한수웅(의 55)</p> <p>하와이 김용수(농 75) 김을균(공 63) 하인환(공 56) 최경윤(사 51)</p> <p>하트랜드 이상강(의 70) 김경숙(자 70)</p> <p>휴스턴 최용천(의 53) 이윤성(수 81) 이은애(음 81)</p> <p>룩키타운틴스 전남인(사 72)</p> <p>에리조나</p>
--	---	--	--	--	--	---	---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p>일반후원금</p> <p>남가주 임낙균(약64) 10,000 송영두(공59) 200 백옥자(음71) 200 한귀희(미68) 50</p> <p>뉴욕 신응남(농70) 500 김해암(의52) 100 리준우(음65) 200 허선형(의58) 200</p> <p>북가주 이성원(공65) 200</p> <p>필라델피아 최창송(의52) 500</p> <p>하트랜드 이상강(의70) 41,000</p> <p>네바다 김삼순(상67) 200</p> <p>미시간 이성길(의65) 200</p> <p>커네티컷 최창송(의52) 500</p> <p>샌디에고 임춘수(의57) 300</p> <p>워싱턴DC 박평일(농69) 500</p>	<p>업소록 후원금</p> <p>남가주 서동영(사60) 240 김원탁(공65) 240</p> <p>뉴욕 신응남(농 70) 240</p> <p>장학기금</p> <p>시카고 이용락(공48) 3,000</p> <p>뉴욕 신응남(농70) 200 홍성선(약72) 100</p> <p>튀르키예 기부금</p> <p>남가주 서진(간) 3,000</p> <p>뉴욕 신응남(농70) 200</p> <p>Brain Network</p> <p>뉴욕 신응남(농70) 100</p> <p>광고후원금</p> <p>남가주 미주재단 1,000 박수경(생84) 300</p>	<p>Website 광고</p> <p>남가주 김자성(의79) 1,000 이상대 500</p> <p>평의원 회의</p> <p>남가주 평의원 박종수 수 58 박윤수 문 48 오홍조 치 58 한홍택 공 60 노명호 공 61 김병연 공 64 최진석 법 64 한호동 공 58 홍성선 약 72 백정현 음 66 박해욱 간 69 임춘택 상 68 강호석 상 81 김인중 농 74 성주경 상 68 제영혜 가 71 민일기 약 69 백옥자 음 71 김경무 공 69 서치원 공 69 주준희 문 72 안혜정 가 83 이종묘 간 69</p>	<p>차종환 사 54 김승배 음 82 한귀희 미 68 이호진 간 74 김상찬 문 65 이영일 문 53 이채진 문 55 강미자 음 62 김자경 가 60 박인창 농 65 유혜연 음 79</p> <p>남가주 일반의원 손영아 음 85 모원균 공 89 김중하 음 85 최용준 수 81 최정희 간 72 신복례 문 83</p> <p>뉴욕 평의원 신응남 농 70 이희만 간 70 조상근 법 69 성기로 약 57 금영천 약 72 허유선 가 83 박상원 음 69 이전구 농 60 이상근 상 84</p>	<p>뉴잉글랜드 평의원 윤상래 수 62 김용구 공 66</p> <p>미네소타 평의원 용정식 농 86 박미연 농 94 양한송 농 89 황호숙 사 65</p> <p>미시간 평의원 이광진 공 81 장병진 공 81</p> <p>북가주 평의원 최경선 농 65</p> <p>시카고 평의원 황치용 문 65 김동희 공 66</p> <p>워싱턴DC 평의원 정세근 자연 82 남욱현 상 84 박평일 농 69 한정희 미 81</p> <p>커네티컷 평의원 김창수 의 54 안선숙 가</p>	<p>커네티컷 일반의원 유은주 문 68</p> <p>필라델피아 평의원 손재욱 가 77 이만택 의 52</p> <p>하트랜드 평의원 이상강 의 70 임소연 음 91 이주현 미 92 김경숙 가 70</p>
--	--	---	--	--	---

알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의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북창등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s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h@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범열 소아과
박범열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종호 소아과
박종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네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eoak.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lp@snu.ac.kr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06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2/7~2024/6, 2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480 (2022/7월 ~ 2024/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Rund(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Full Size Black \$1,500 <input type="checkbox"/> 1/3 Size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중섭(문),
고문: 박종수(수) 김병연(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이흥표(의) 정재훈(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중(농)
박창규(약)

차기회장 황효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치),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중(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한홍택(공)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임춘택(상)
IT국장: 심재호(공)/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섭외국장: 안혜정(가)/함은선(음, 워싱턴DC)
홍보국장: 김승배(음)
행사국장: 주준희(문)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생,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한홍택(공), 황경순(공), 이지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연(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임항균(사)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news@snuua.org 웹사이트 www.snuu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2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30@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김경무(공대69) T: (213)210-1110
kyungmookim@yahoo.com

차기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미시간 MICHIGAN (Jan~Dec)

회장 이광진(공 81), 248-595-2836
kmikelee@umich.edu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회장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북가주 SAN FRANCISCO (Jan~Dec)

회장 최경선(농대 65) T: (408)621-8080
kschoi@comcast.net

차기 회장 김범섭(공 79)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황치룡(문리 65) T: (224)334-1224
chi.whang@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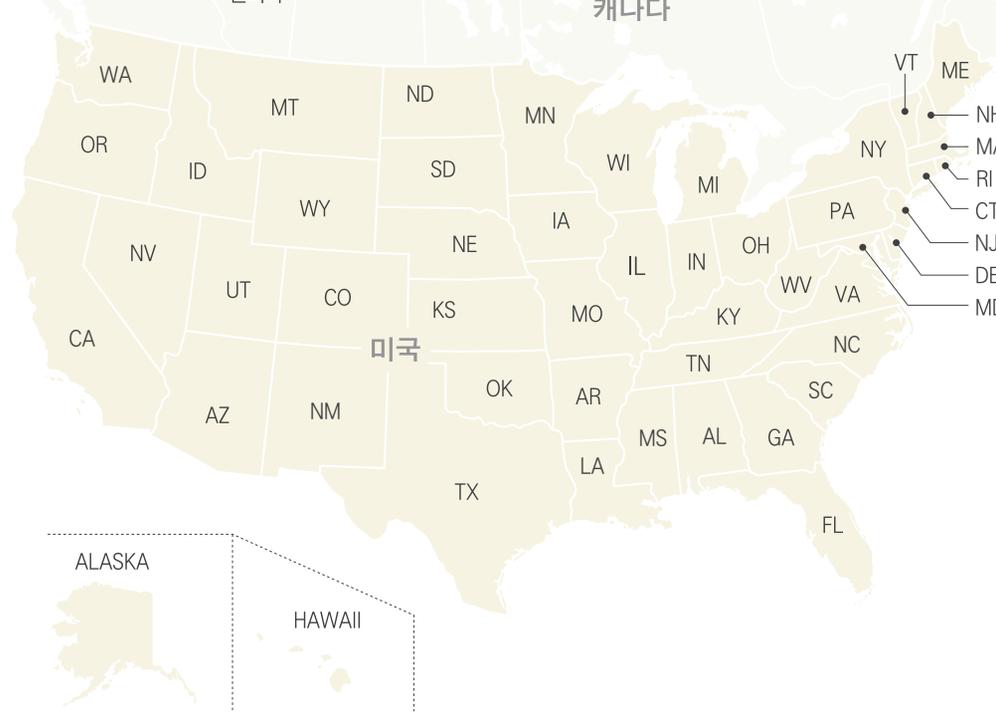
차기 회장 조규승(문리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회장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Nov~Oct)

김종범(공대 83) T: (203) 909-2387
kimjongb@gmail.com



뉴욕 NY/NJ (July~Jun)

회장 연영재(공대 74) T: (201)233-7108
jayeon@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회장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tf@hot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회장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커네티컷 CT

박용해(상대 83) T: (203)767-8187
yhptax@g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회장 성낙길(문리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차기 회장 전수진 T: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회장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김순기(치대 82)
EricSophia@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텍사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김건호(공 91)
회장 kunhok@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최희덕(사대 68) T: (973)610-5857
heeduklee@gmail.com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 98) (310) 689-6366
syeom@vols.utk.edu

since 1999 **듀오** USA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 듀오



LA **213-383-2525**
NY **201-947-2525**

www.duouusa.net



SR WINDOW LLC

901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C. 213-700-4119 / O. 323-232-1700 Fax 323-232-4700

최고급 이중창문 3/4 DUAL GLASS

이중유리에 들어가는 Spacer, Screen Frame, Insulated Silicone 등 모든 부속은 미국 최대 Hardware maker인 C.R. Laurence Co. 제품입니다. SR의 PROFILE은 한국 LG 화학이 개발한 무공해 첨단소재를 사용했고 PATIO DOOR의 PROFILE은 독일제.

WINDOW PRODUCTION PERSONNEL WILL INSTALL IT. IT ALSO SOLVES SENSITIVE AND DELICATE PARTS. 윈도우 제작 직원들이 설치합니다, 사공에도 섬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J.S. LEE / SUPERVISOR / TECHNICAL COLLEGE OF HANYANG UNIV. KOREA, EXCELLENT TECHNOLOGY EVALUATION AWARD(NICE) 한양공대/NICE 선정 최우수 기술평가



JUAN SUAREZ / MANAGER / 20 YEARS EXPERIENCED WINDOW PRODUCT



WON RYU / CEO / PH.D / FORME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FOUNDED SR WINDOW 199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최고급 이중창문
1999.00
BIG SALE
10 WINDOWS

DUAL GLASS / VINYL FRAME
STANDARD SIZE / TOP QUALITY



'윈도우'를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

유원(언론정보 74) **Window tells your personality**



DIAMOND GLOBAL ESCROW, INC

- (818) 402-2005
- (909) 860-3333
- (909) 860-3330
- audra.hong@diamondage.com



22632 GOLDEN SPRINGS DR, STE 160, DIAMOND BAR, CA 91765



17대 이상강 회장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서치원(공대 69, 전 남가주 총동창회장)



Refrigeration Reinvented

Outstanding Reliability / Superior Functionality / Excellent Convenience



Turbo Air Group is a global commercial refrigeration manufacturer with 18 warehouse locations across the United States and 7 factories located in U.S.A, Korea, China, and Vietnam. Our products are sold in 70 countries worldwide.



Eco-Friendly Turbo Air

Natural refrigerant is now used in all Turbo Air products.

Replaced Hydrocarbon Refrigerants (R-290/R-600a)
Decreased energy consumption by an average of 25%
Registered with the Department of Energy & Energy Star

Patented Self-Cleaning Condenser

The 'Self-Cleaning Condenser' cleans the condenser with a rotating brush that moves up and down 2-3 times a day, preventing any dust build-up and making it possible to always maintain the highest efficiency while saving additional energy.



Let's Watch Turbo Air's Self-Cleaning Condenser Video!